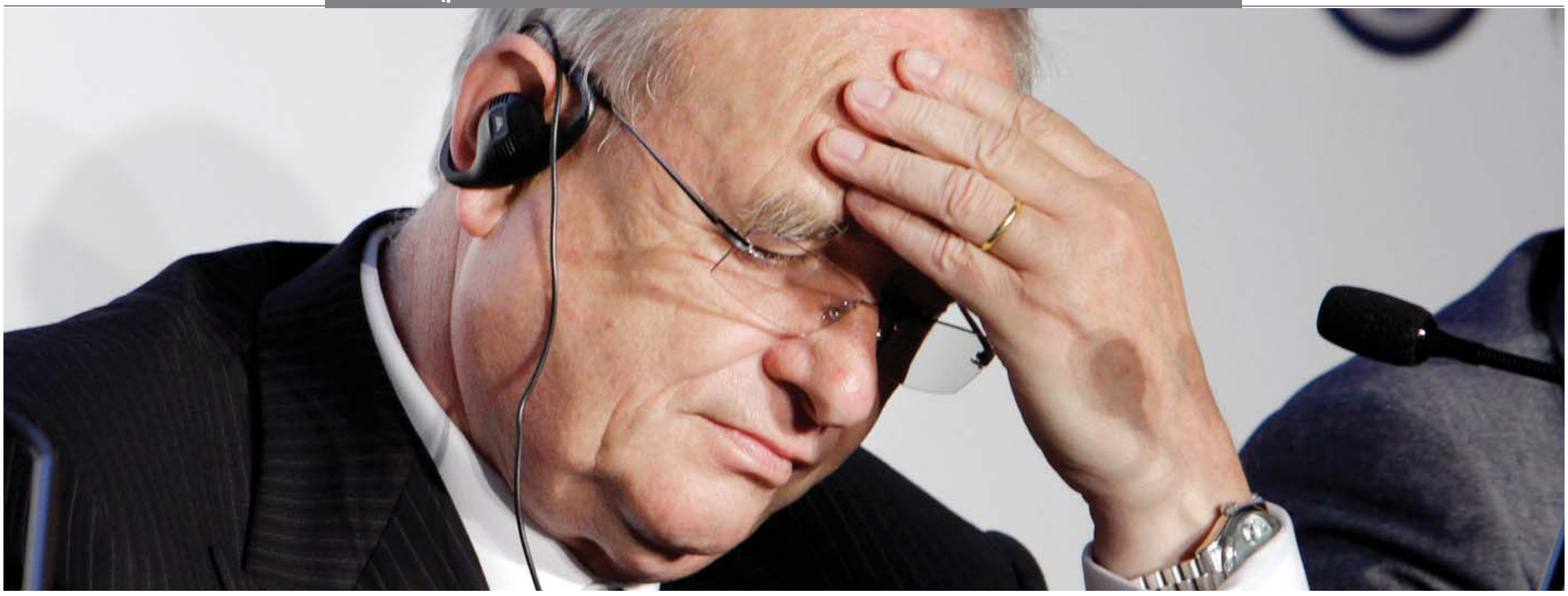


'이태원살인사건' 용의자 송환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제3308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1944.64	(-37.42)
코스닥	680.28	(-13.39)
금리(국고채 3년)	1.62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89.00	(+6.50)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가 고개를 숙인채 생각에 잠겨 있다. /AP통신

디젤차의 종언?

폭스바겐 배출가스 속임수 파문에 전기차 '미소'
테슬라·애플·중국업계 개발 박차… 현대차는?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속임수'가 글로벌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폭스바겐 측이 자사의 디젤 승용차 1100만대가 배출가스 차단장치 소프트웨어(SW)로 테스트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전문가들은 '고연비·친환경' 타이틀을 단 디젤차량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눈속임' 사태가 전기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일부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차량 검사 때와 실제 주행 시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면서다. 폭스바겐은 내부 조사를 통해 당초 알려진 48만2000여대보다 더 많은 1100만대의 차량에 문제의 SW가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산하 브랜드 아우디, 포르쉐, 스코다 등도 이 SW를 장착하고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최대 금융그룹 BNP파리바의 스튜어트 피어슨 연구원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눈속임 SW를 작동한 유일한 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디젤 선호도가 높은 한국과 유럽 등에서 폭스바겐은 2.0 TDI 디젤엔진을 '고연비·친환경디젤엔진'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내 인기 수입차량인 파사트, 골프, 제타, 아우디 A3 등도 이 엔진을 장착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도 문제 차종에 대한 연비 조사에 나섰다. 통상 정부가 자동차 연비 검사를 합격 처리했다가 재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에 따르면 이미 판매된 폭스바겐의 눈속임 모델 차량은 5만9000여대다. 이 때문에 업계는 디젤차량 판매량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독일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조사에 착수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젤차의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각국 환경부처의 연비·배기가스 규정도 더 엄격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폭스바겐의 위기로 전기차 업체는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IT(정보기술)기업, 엔터테인먼트 업체들까지 나섰다. IT기업 애플은 2019년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다. 애플 연구원과 직원 600명이 타이탄이라는 팀명을 달고 개발 중이다. 애플은 현재팀의 규모를 세 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차 개발에 확실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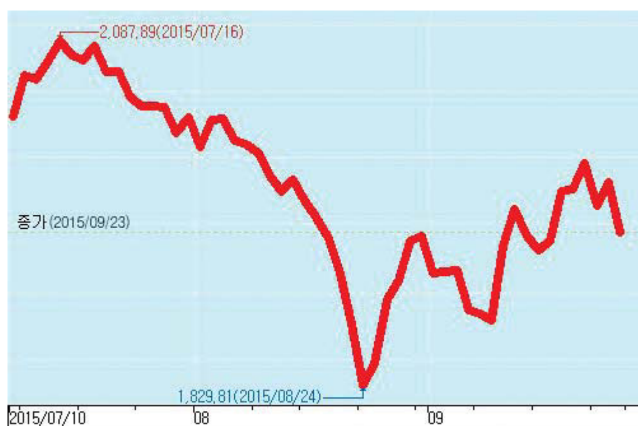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도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1위 자동차 기업인 상하이자동차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 전기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베이징자동차는 9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시에 R&D센터를 설립했다. 프리몬트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이다.

분야를 막론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은 전기차 관련주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3.1%(8000원) 오른 26만6000원에, 삼성SDI는 3.03%(3000원) 증가한 10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러한 전기차 관련주 호조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향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개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쏘울·레이 등의 전기차는 개조형이기 때문에 전용 플랫폼을 갖춘 전기차 양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코스피 지수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중국 제조업 PMI 47.0… 6년 반만에 최저

중국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42포인트(1.89%) 내린 1944.64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이 4729억원어치 주식을 내던지며 3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갔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900억원, 467억원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중국의 9월 제조업 PMI(잠정치)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7.0으로, 지난 2009년 3월 이후 6년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중국의 제조업 PMI 발표 이후 주요 글로벌 증시도 급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오후 2시46분(현지시간) 현재 전날보다 74.05포인트(2.32%) 떨어진 3111.57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홍콩 항셍지수는 2.92% 하락한 21159.27을 기록하며 오전보다 낙폭을 키웠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날보다 179.72포인트(1.09%) 내린 1만6330.47, 나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72.23포인트(1.50%) 급락한 4756.72, S&P500지수도 24.23포인트(1.23%) 하락한 1942.74으로 장을 마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Criticizm over securing apartment manager's term

관리소장 임기보장 논란



It turned out that Seoul submitted a proposal that apartement manager's term should be secured and it is being criticized by the representatives of apartment.

The representatives claim that Seoul is favoring apartment manager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ransportation, Seoul submitted a proposal that contains an agenda about securing apartment manager's term at least for 2 years.

The purpose of the submission is to support apartment managers institutionally so that they could work in better circumstances without being interfered by the representatives of apartment.

However, private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the residents are strongly against the agenda.

Kim won-il, the secretary general of apartment residents says "Managers of apartment are like employees who are hired and get paid by the residents, securing their terms is against principle of democracy and resident autonomy.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아파트 관리소장도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아파트입주민대표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에 이어 서울시까지 아파트 관련 이해 당사자인 관리소장측을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배경에 깔려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임기를 최소한 2년간 보장하는 규정을 주택법에 삽입하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냈다.

관리소장들이 동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파트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회장 이재윤) 김원일 사무총장은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일종의 직원 개념인데, 공무원처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사회

▲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 개악' 저지를 내걸고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5500명)이 참가한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이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3년간의 옥살이를 한 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 현직 중학교 교사가 대학원 수업을 함께 듣는 고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대학교는 조사과정에서 남성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해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신고를 하지 않은 **에어비앤비**(Airbnb) 운영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퇴직 직후 엇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치

▲ 

북한이 미국의 CNN방송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제시설을 공개하며 발사 임박 사실을 알렸다.

▲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고 연이어 경고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안철수** 의원에게 내년 총선에서 열세지역에 출마해 살신성인을 실천하라고 요구했지만 안 의원은 거부했다.

▲ **더글러스 맥아더** 미 극동사령관이 6·25당시 제2의 미군정을 막았다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됐다.

국제

▲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미국에서 차주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폭스바겐은 조작 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 대에 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시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북서부 산업도시 시애틀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7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 미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형 세단이나 방탄차가 아니라 이탈리아 산 검은색 소형 피아트 500L를 타며 친서민 행보를 이어갔다.



붉게 물들어가는 설악산 절기상 추분(秋分)인 23일 오전 강원 속초시 설악산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설악산 단풍이 예년보다 사나흘 빨라져 다음달 18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보했다. / 뉴시스

산업·경제

▲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속임수'가 글로벌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폭스바겐 측이 자사의 디젤 승용차 1100만대가 배출가스 차단장치 소프트웨어(SW)로 테스트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전문가들은 '고연비·친환경' 타이틀을 단 디젤차량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 **최태원**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한 뒤 SK그룹의 체질개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며 핵심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황창규** KT회장은 대한민국 통신 130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ICT와 제조업의 융합으로 만들어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 참가해 전기차기술(E-Mobility), 자율주행기술(Automated Driving), 커넥티드카, 스마트 시티, 차량용 모바일 등 차세대 신차를 이끄는 첨단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 **오피스텔**이 업무용보다는 주거시설로서 자리잡아가면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오피스텔 주거기능 강화에 힘쓰면서 아파트 평면과 똑같은 오피스텔이 나오는가 하면 대단지 아파트와 맞먹는 커뮤니티시설부터 조경과 친환경 에너지 설비까지 '오피스텔의 아파트화'가 진행되고 있다.

▲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에 대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 화장품업계가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기간 방한하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앞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서 기준금리가 동결, 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한차례 조정을 거친 코스피도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큰 폭 주저앉았다.

▲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폭스바겐을 비롯한 전세계 자동차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78.2%로 3월 말(302.1%)보다 23.8% 포인트 하락했고, 생명보험업계에선 현대라이프(118.9%), 손보에선 엠지손보(116.5%)가 가장 낮았다.

대북전단 살포로 이산가족 상봉 무산 위기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대북전단을 대형에드벌룬에 실어 보내고 있다. /뉴시스

대북전단 날리면 상봉 못해 남북 당국회담도 무산 경고 강제로 못막는다는 정부에 관계 개선 의지 시금석 경고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고 연이어 경고했다. 또 8·25합의의 상 남북 당국회담까지 무산될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통일부의 입장을 물었다. 통일부는 법적 근거 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로 남북고위급회담 후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있었지만 대북전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남북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23일 통일부는 정준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실 (살포되기) 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향 전달이 불가능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이 전단살포로 인해 타인에 위해를 준다든지 공공질서에 반해선 안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기본권 보장 측면과 주민들의 신변보호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처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온라인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편집국 성명을 통해 "동족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고취하는 너절한 삐라장들이 날리는 하늘 아래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더구나 그 속에서 북남 당국자들이 어떻게 화기애애하게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도 통일부의 브리핑을 두고 "그야말로 대결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망발인 동시에 어처구니없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삐라(대북전단)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통일부의 진짜 기본입장이라고 했으니 결국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 것이 저들의 기본입장이라는것이 아닌가. (8·25)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거짓이고 지금 이 시각 대화를 운운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고 결국은 가짜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지난 시기 인간추물들이 뿌려댄 삐라로 하여 북남 사이에 총포탄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고있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그런 위험천만한 사태를 빚어내고 싶어 계획적인 도발에 매달리고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을 모독하는 도발망동이 계속되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그 무엇이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경고를 심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삐라살포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반공화국 삐라살포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의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김정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동영상,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단과 함께 10개의 대형애드벌룬에 실어 날린 바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맥아더, 제2의 미군정 막았다

美합참 '군정실시' 지시 반대

더글러스 맥아더 미 극동사령관이 6·25당시 제2의 미군정을 막았다는 내용의 문서가 공개됐다.

2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맥아더 사령관은 인천상륙작전 성공 직후인 1950년 9월 23일 미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전문에서 "서울의 안보가 충분히 회복되는 대로 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각료, 국회 지도부, 유엔 한국위원단이 서울에 입성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의 서울 입성은 정부의 재편이나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기존 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복원시킴으로써 법적 절차를 재가동하고 적으로부터 탈환한 지역에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탈환작전을 마무리하는 즉시 서울의 통치권을 이승만 정부에 넘기겠다는 의미다.

군사편찬연구소 측은 서울에서 미 8군의 군정을 실시하라는 미 합참의 지시에 대해 맥아더 사령관이 반대 의견을 밝힌 답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 합참은 북한군을 몰아낸 서울에 바로 이승만 정부를 불러들이기보다는 일정 기간 미군이 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아더 사령관은 해방 직후 실시된 미군정에 이은 제2의 미군정을 막아낸 셈이다.



중앙청 홀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유엔기 앞에서 서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을 완전히 수복한 맥아더 사령관은 9월 29일 중앙청에서 거행한 역사적인 환도식에 이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이 자리에서 맥아더 사령관은 "유엔군을 대표해 이 대통령에게 원래의 자리를 돌려줄 수 있게 돼 기쁘기 그지없다. 자비로운 신께서 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관용과 정의로 만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길 기원한다"고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서울을 탈환한 유엔군 장병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으며 맥아더 사령관에게는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두 사람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형 기자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박" 북한이 미국의 CNN방송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제시설을 공개하며 발사 임박 사실을 알렸다. 현광일 우주개발국(NADA) 과학개발부장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 더 미더운 기반에서 더 나은 위성을 운반하기 위해 발사 장소를 고르고 있다"며 "위성을 우주로 내보낼 통제 체계는 완성했다. 그리고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중요한 통제 작업도 거의 마무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CNN은 22일(현지시간) 관제소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함께 관제소 건물의 외부를 공개했다. 북한이 CNN에 최초로 공개한 관제소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자택과 가까운 평양 도심의 보통강 구역 서재골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 화면캡처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에 집단소송 쇄도

美 20여개 주 25건 제기

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미국에서 차주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폭스바겐은 조작 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 대에 달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시애틀의 로펌 헤이건스 베르만은 미국 20여개 주의 폴크스바겐 차주들을 대표해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시애틀의 다른 로펌 켈러 로어백, 앨라배마의 로펌 마스탄도 앤 아르트립, 캘리포니아의 변호사 데이비드 벤들러 등도 폴크스바겐 차주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단 중에는 변호사들과 로스쿨의 환경법 교수 등이 포함됐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48만2000대의 디젤 차량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연비에 대해 사기를 치면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광고를 해 연방과 주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역에서 적어도 25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새정치, 조경태 찍어내고 안철수 밀어낸다

혁신위, 조 의원 강력조치 요구 안 의원엔 열세지역 출마 제안

조 "문 대표의 사당화" 비판 안 "지역구 주민과 약속" 거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비주류 수장인 안철수, 김한길 의원을 포함한 전 대표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열세지역에 출마해 살신성인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또 문재인 대표를 비판해 온 조경태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선언은 지난해 7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수원병 지역에 출마했다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대권을 노리는 안 의원 입장에서는 살생부처럼 들릴만한 요구다. 서울 노원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했다.

조 의원은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 '문 대표의 사당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안 의원 등 전직대표들에게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요구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책임있는 계파 수장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또 문 대표에게는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 당 총선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를 비판해 온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 행위자"라며 당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무현계의 희생까지 포함한 요구이지만 비주류로서는 희생을 넘어 자칫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마지막 혁신안은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지원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내년 총선을 통해 비주류 주요 수장들의 정치생명이 백척간두에 놓이는 셈이다. 이 혁신안은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 문 대표는 "대표인만큼 솔선수범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정치인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원병은 서민 중산층이 아주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제가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다고 처음에 정치 시작하면서 약속을 드렸다"며 혁신위 요구를 거부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당 대표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당 목표인 정권창출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해 왔다. 당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해당행위이면 이 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이 당이 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혁신위의 발언들은 우리당이 더이상 민주정당임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당을 분열로 당을 찢어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해당행위자"라고 반박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여친 낙태·女장교 성희롱… 육사생도 일탈 도 넘었다

임신한 여자친구를 낙태시키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다 퇴학당하는 등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육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징계를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했다. 자퇴자도 108명이나 됐다.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2014년 졸업과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민간인 여자친구의 임신과 낙태 종용을 이유로 퇴학 처리됐다. A씨는 2012년 교제한 뒤 여자친구가 임신했으나 생도 신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형법 269조에 의해 금지된 낙태를 종용했다.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낙태에 응했던 여자친구는 이후 A씨와 이별하게 됐고, A씨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 사실을 육사 감찰실에 신고해서 A씨는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퇴학당하게 됐다. 이 생도는 중대 행정관으로 다른 생도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하급생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올해 8월 18일에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 비하 발언을 올리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2학년 생도 2명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또 6월 19일에는 2학년 생도 대상 리더십 역량 관련 과제에서 22명의 생도가 표절 행위로 무더기 중징계를 당한 일도 있었다. 이들 중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퇴학 조치됐다. 2월 2일에는 기말고사 시험에서 필통에 커닝 자료를 휴대해 부정행위를 한 4학년 생도가 퇴학 조치됐다. 지난해 2월 14일과 6월 27일에는 반복적인 흡연을 하던 생도 5명이 이를 신고한 생도를 협박하다 퇴학당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관생도들의 일탈 문제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뿐 후속조치는 미비하다. 군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도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훈육제도 전반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안철수 '현대판 음서제' 근절 나섰다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등록제' 추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서제란 고려·조선시대 때 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 또는 고관의 자손을 공직에 특별채용했던 제도로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의 자녀가 취업시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취업일, 수입 등 취업현황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된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업변동 등 특혜의혹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고와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현황의 경우 재산현황과 달리 독립생계 등 예외조항 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에 따라 등록과 심사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의 정치혁신안 중 하나다. 안 의원은 추석 연휴 이후 혁신 비전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와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송병형 기자

이인제 "합의로 위기 극복" vs 추미애 "소타협도 못 돼"

여야 '노동개혁' 맞짱토론

노동개혁 문제를 책임진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이 23일 '맞짱토론'을 벌였다.

이날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대한 평가부터 달리 했다.


이인제 의원


추미애 의원

이 위원장은 "현재 당면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추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표만 불러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냐. 나는 소타협도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해서 추 위원장은 "이른바 맘대로 해고제도다. 사용자가 잘라야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윗사람 비위 못 맞추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시부모가 아파 병간호 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느닷없는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이 위험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만들겠다는 거다. 요건 절차는 노사정위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돼있다"고 반박했다. /송병형 기자

박상은, 항소심서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2060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10만8000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총 자금 수수액 12억3000여만원 중 2억4010만8000원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봤으나, 항소심은 8065만원만 범죄 액수로 인정했다.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주협회로부터 3차례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혐의에도 "이익단체가 참가비를 지원한 행사라도 국회의원의 민의 수렴 업무와 관련돼 있고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정치자금 기부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지지자들의 과태료 210만원을 대납해줘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

결국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 정치자금은 2009~2010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한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과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등 8065만2060원으로 정리됐다.

대한제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4억9000만원을 받아 숨겨뒀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 위반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연미란 기자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송환

"범인은 리… 혐의 인정 못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사진)이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3년간의 옥살이를 한 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26분쯤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편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혐의를 부인하며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이날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이날 5시8분쯤 모습을 드러낸 패터슨은 호송팀 관계자에게 양팔을 잡힌 채 입국장 B게이트로 나왔다. 하얀 티셔츠와 헐렁한 흰 바지를 입고 다소 창백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다.

수갑을 찬 양 손은 옷으로 둘둘 말려 있었다. 5명의 호송팀과 동행한 그는 비행기에서도 줄곧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외국에 3명가량의 호송팀을 보내는 것과는 달리 법무부는 현지에서 합류한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호송팀을 가동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패터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범인이 에드워드 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같은 사람. 난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유가족들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이다"라는 말을 남긴 채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패터슨은 곧바로 서울구치소 수감된 뒤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미신고 에어비앤비 불법" 국내 첫 판결

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신고를 하지 않은 에어비앤비(Airbnb) 운영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연간 20만명에 육박하는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어 판결의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짜리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 초까지 영리행위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했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부산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이달 18일 같은 법으로 기소된 B모(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원에 재웠다가 처벌받았다.

이 두 판결은 2013년 1월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진출한 뒤 이를 통한 영업의 불법성을 놓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고객을 뺏긴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으로 안전·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불법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에어비앤비 중 미신고 숙소의 비율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 다만 작년 10월 미국 뉴욕주 검찰은 뉴욕시 에어비앤비 숙소 중 72%가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공간주인)들이 숙소를 등록하기 전 현지 법규와 관련제도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미란 기자

‘구파발 총기사고’ 박 경위 기소

檢, 살인죄 적용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가 살인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총탄 발사의 의지가 컸다고 봤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권총으로 의경 박모(21) 수경(당시 상경)을 쏴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박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8월 25일 오후 4시 55분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 수경에게 향하고서 방아쇠를 당겼다가 총탄에 박 수경이 왼쪽 가슴 부위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박 경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실탄이 발사됐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박 경위도 “탄창의 첫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경위가 위험한 총기를 다루면서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 경위가 권총 발사 순간 권총의 반동을 억누르고 피해자의 심장을 정조준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겼으므로 그 자체로 총탄을 발사하겠다는 의지가 구체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 경위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경위가 불안증 치료제를 복용한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다. 중과실치사는 업무와 상관없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에 적용하는 죄명이다. 형량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이 총기로 장난을 치다 사고를 내 벌어진 일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이더라도 총기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판단, 중과실치사로 적용 법조항을 바꿨다.

박 경위는 실탄을 발사하기 전 총구를 박 수경과 함께 있던 다른 의경들에게도 돌려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기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연미란 기자

농협 거래업체 추가 압수수색

檢, 농협 비리의혹 관련 S인쇄업체 등 4곳 실시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S인쇄업체 등 농협 거래업체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수색에는 S사 대표 손모씨의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농협과의 거래내역, 수의계약 자료,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S사 대표 손씨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경주 안강



농협 전 이사 손모(63·구속)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 업체는 농민신문사 등 농협중앙회 주요 관계·계열사들로부터 수의 계약 형태로 100억원대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가 손 전 이사와 유착해 사업상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최 회장을 비롯한 농협 수뇌부가 여기에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민신문사는 전국 지역 농·축협이 회원으로 가입된 비영리법인이다. 최 회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며 매년 수억원의 추가 급여를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전 이사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의 협력업체 A사 고문으로 활동하며 사업 수주를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8일 구속됐다.

손 전 이사는 최 회장이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있던 2002~2004년 의장 운전기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연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조합원 1만여명 참가
정부 “불법파업, 엄단할 것”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 개악’ 저지를 내걸고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5500명)이 참가한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파렴치한 노사정 야합에 분노해 민노총은 전면전에 돌입했다”며 “우리 아들딸들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들고,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됐으나, 이날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민노총은 총파업 6대 요구 사항으로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실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내세웠다.

민노총은 총파업 집회에 이어 11월 14일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도 연가를 내거나 조퇴한 후 참여했다. 전교조 측은 정확한 집회 참가 인원은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 일부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야기 공동 수업’도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는 엄단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3시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는 39명의 총파업 집회 참가자들이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벌였다가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연미란 기자

檢, 법원 직원들 성추행 몰카 혐의 수사

법원 직원들이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직원 김모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지하철 안에서 여성 A씨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재판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니다”라며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직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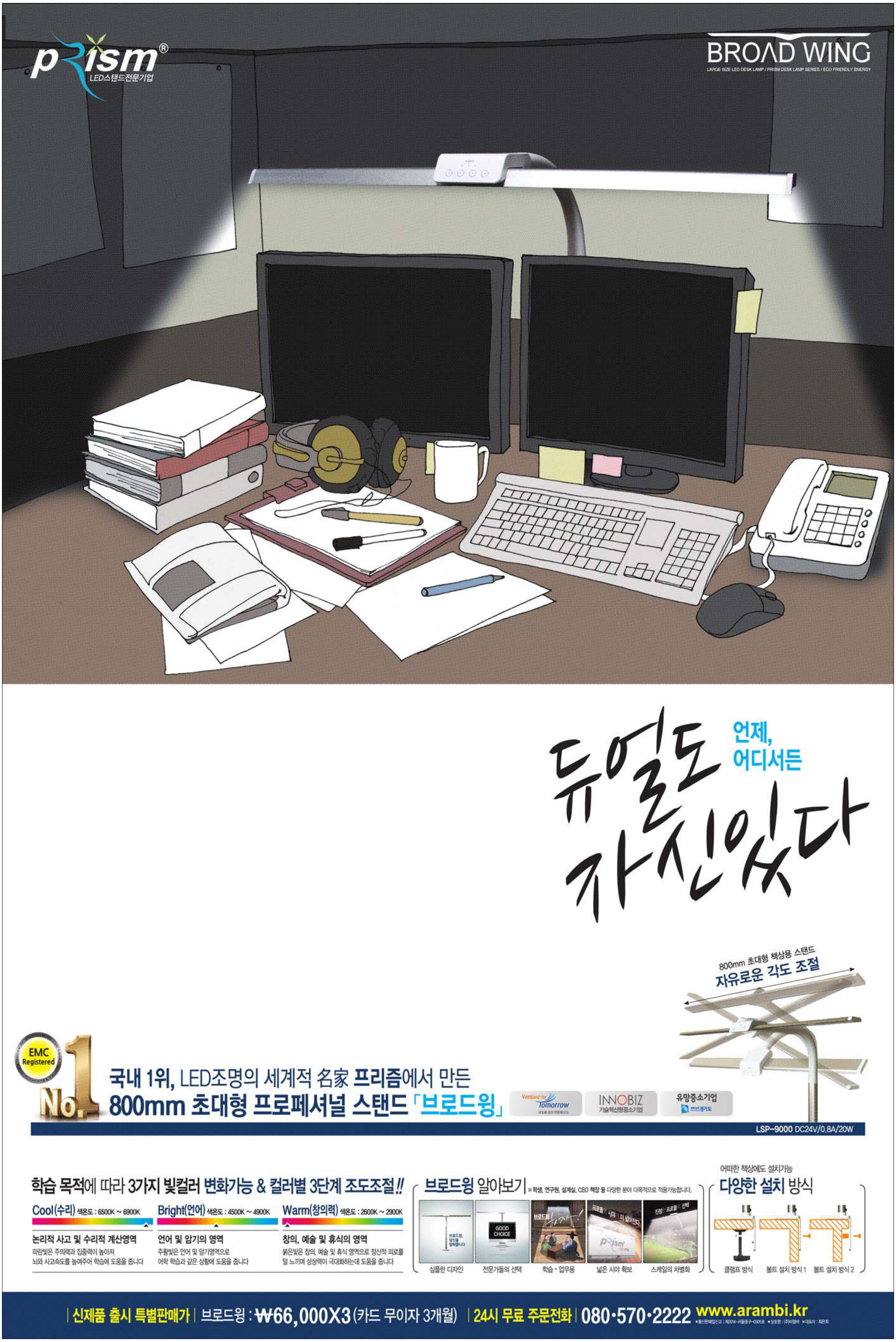
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지인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서울고법 소속 직원 이모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착수했다.

법원은 김씨와 이씨가 기소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상명대,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 초청 명인 특강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23일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을 초청해 ‘보이지 않는 전쟁, 들리지 않는 폭풍·21세기를 살아가는 knowhow’라는 주제로 학생과 교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특강은 1959년 외무부에 입부하여 1996년 외무부장관을 역임하기까지 세계각국의 대사와 주UN대사를 역임하며 쌓아온 경험과 대한적십자 총재로서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해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prism®
LED스탠드전문기업
BROAD WING
LARGE SIZE LED DESK LAMP / PRISM DESK LAMP SERIES / ECO FRIENDLY ENERGY
언제, 어디서든
듀얼도 자신있다
800mm 초대형 책상용 스탠드
자유로운 각도 조절
EMC Registered
No.1
국내 1위, LED조명의 세계적 名家 프리즘에서 만든
800mm 초대형 프로페셔널 스탠드 「브로드윙」
Venture for Tomorrow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LSP-9000 DC24V/0.8A/20W
학습 목적에 따라 3가지 빛컬러 변화가능 & 컬러별 3단계 조도조절!!
Cool(수리) 색온도 : 6500K ~ 6900K
논리적 사고 및 수리적 계산영역
파란빛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져 뇌와 사고속도를 높여주어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Bright(언어) 색온도 : 4500K ~ 4900K
언어 및 암기의 영역
주황빛은 언어 및 암기영역으로 어학 학습과 같은 상황에 도움을 줍니다
Warm(창의력) 색온도 : 2600K ~ 2900K
창의, 예술 및 휴식의 영역
붉은빛은 창의, 예술 및 휴식 영역으로 정신적 피로를 덜 느끼며 상상력이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드윙 알아보기 ※학생, 연구원, 설계실, CEO 책장 등 다양한 분야 다목적으로 적용가능합니다.
GOOD CHOICE
심플한 디자인
전문가들의 선택
학습・업무용
넓은 시야 확보
스케일의 차별화
어떠한 책상에도 설치가능
다양한 설치 방식
클램프 방식
볼트 설치 방식 1
볼트 설치 방식 2
신제품 출시 특별판매가 | 브로드윙 : ₩66,000X3(카드 무이자 3개월)
24시 무료 주문전화 | 080·570·2222
www.arambi.kr

최태원식 ‘선택과 집중’… ‘파워 업’ SK

해외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 경쟁력 강화 ‘스피드 업’
핵심 사업 성장동력 확보 위해 빠른 결단 주목

최태원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한 뒤 SK그룹의 체질개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 기업들과의 협업,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며 핵심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 회장 지휘 아래 SK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도체분야 집중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그룹의 주요사업 확장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열정을 쏟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전략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링은 SK가 각 분야 대표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최 회장은 전날 SK루브리컨츠와 스페인 렙솔의 합작법인인 일복(ILBOC)의 스페인 카르타헤나 윤활기유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스페인 윤활기유 공장 준공으로 SK루브리컨츠는 하루 7800배럴(연 350만t)의 윤활기유 생산 능력을 갖춰 엑손 모빌, 쉘에 이어 세계 3위의 윤활기유 제조업체로 올라섰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앞으로 석유·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 회장이 SK 에너지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유럽 출장에서도 최 회장은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 스페인에 이어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펠트호벤에서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ASML사를 찾아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비 시설을 둘러본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 3위 원유·석유 트레이딩 회사인 트라피규라사의 클로드 도팽 회장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달 SK하이닉스 중국 우시공장을 찾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SK 제공

앞서 최 회장은 복귀 후 첫 해외 출장지로 중국·홍콩·대만을 선택했다. 중화권에서 에너지·화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다. 최 회장은 대만 최대 기업 포모사그룹의 왕원위안 회장 등을 만나 에너지·화학, ICT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하는 등 SK의 글로벌 영토 확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이 같은 SK와 해외 기업 간 협업의 성과물은 점차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4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 루나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루나는 SK를 축으로 여러 기업이 힘을 모은 제품이다. 기획과 디자인은 TG앤컴퍼니가, 생산은 애플의 위탁생산 업체인 폭스콘이, 감수는 SK텔레콤이 각각 담당했다.

최 회장은 이달 초 궈타이밍 홍하이 그룹 회장과 통신·반도체 사업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폭스콘은 SK의 전략적 파트너인 홍하이 그룹의 자회사다. 향후 SK가 주도하고 폭스콘이 생산하는 혁신 ITC 제품 출시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국내에서도 주력 사업 투자에 대한 빠른 결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세를 불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경기도 이천에 M14 준공 등 총 4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 회장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전체 반도체 업계의 투자가 축소되는 불투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시설투자를 홀로 10% 이상 대폭 확대하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LG ‘슈퍼폰’ 업계 관심집중

스마트폰 혁신 기대감 증폭

LG전자의 ‘슈퍼 프리미엄폰’으로 예상되는 추정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반격을 위해 혁신 기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LG전자가 최근 보급형 제품을 내놓은데 이어 오는 10월 1일에는 프리미엄 폰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급형 제품이 가격과 뛰어난 카메라 기능 등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상황에서 프리미엄 추정 제품의 화면속에 또하나의 화면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V속에 또 하나의 TV화면이 들어간 것(Picture In Picture, PIP)과 같은 방식이다.

이처럼 LG전자가 내달 1일 공개할 ‘슈퍼 프리미엄폰’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구본준 부회장과 함께 LG전자 대표를 맡고 있는 정도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 7월 열린 LG전자 2분기 실적설명회에서 ‘초프리미엄폰’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준호 사장이 기획, 개발 단계부터 진두지휘하며 내놓는 첫번째 제품이다.

스마트폰 신제품 정보로 유명한 트위터리안 이브이리크스(@evleaks)는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LG전자 신제품 ‘V10’(가칭)으로 추정되는 기기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품군인 G시리즈를 뛰어넘는



슈퍼프리미엄급이다.

제품에는 기존 ‘G 시리즈’보다 큰 QHD(Quad HD, 2560×1440)급 5.7인치 대화면에 좌우 측면은 메탈 프레임이 적용됐고 후면은 플라스틱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기능은 듀얼카메라다. 듀얼카메라는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원근감과 색감을 살려 더욱 입체적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1600만화소 후면카메라, 500만화소 전면카메라, 지문인식 센서 등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제품의 외관은 기존 G4 제품과 비슷 보이지만 메탈 소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전체에 메탈 케이스를 적용하는 ‘풀메탈’이 아니라 테두리에는 금속을, 뒷면에는 우레탄 등 다른 소재를 채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메인 화면과 별도로 상단에 각종 정보나 알림을 표시하는 보조화면이 배치됐었다. 보조화면에 자주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해 빠른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알림 메시지도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전자는 내달 1일 서울과 뉴욕에서 공개행사를 개최하고 신제품의 공식적인 출시 소식을 알릴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 전역연기 장병 애국심… 채용으로 화답

60여명 특별채용 돌입

SK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서린사옥에서 SK 입사를 희망하는 전역연기 장병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자 60여명에 대한 특별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입사 지원자들에게 SK 문화와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SK 그룹 소개와 특별채용 절차 안내·개인별 면담 등이 진행됐다.



SK가 23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린사옥에서 개최한 ‘전역연기 장병 특별채용 설명회’에 참석한 군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 제공

그동안 SK는 관계 당국과 협조해 전역연기 장병들의 채용에 대한 세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관계사 채용담당자와의 면담 등 소정의 과정을거쳐 SK그룹 관계사에 채용된다.

SK그룹은 지난달 말 최태원 회장의 지시로 남북 경색 정국에서 전역연기를 신청한 장병들에 대해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보여 준 열정과 패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DNA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와 기업은 이런 정신을 평가해야 한다”고 채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K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정신이 SK가 강조하는 열정과 패기의 기업 문화와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56만 모든 장병들에게 1박2일 ‘특별 휴가’를 주기로 한 것과 함께 이번 특별채용이 군의 사기 진작, 국민과 기업의 안보 의식 고취 및 경제 살리기에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SK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특별채용 설명회에 참석한 정해월 씨는 “나라가 위급할 때 대한민국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SK 입사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며 “군 복무 과정에서 배운 희생정신과 극기정신을 바탕으로 SK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한진 기자

삼성전자
대구서 창조일자리 박람회

삼성전자가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정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대구·경북 청년 20만+ 창조일자리 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지역의 파트너 기업과 함께 청년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청년고용 대책 중 하나다. 개막 행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연구개발,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술, 제조 등에 걸쳐 600여명의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청년 20만+ 창조일자리 박람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취업 기회와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車 부품 첨단기술, 신차보다 빠르게 달린다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자율주행·전기차배터리 등 전자·IT 융합화 기술 한눈에



델파이 자율주행 시연 차량.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 참가해 차세대 신차를 이끄는 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IAA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 정보기술(IT)과 자동차 기술의 융합화 추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New Mobility World' 관이 새롭게 편성 운영된다.

전기차기술(E-Mobility)을 비롯해 구글, 애플 등 IT 대기업의 진입 가능성으로 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율주행기술(Automated Driving), 커넥티드 카, 스마트 시티, 차량용 모바일 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다.

23일 보쉬에 따르면 자율 주행으로 가는 트렌드는 보쉬의 주요 매출원이다.

차선 유지 지원(lane-keeping support), 긴급 제동 지원(emergency brake assist) 등 조력 시스템(assistance systems)을 장착한 신차가 늘면서, 레이더와 비디오 센서의 매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운전자 조력 시스템 매출은 2016년 10억 유로를 넘을 것으로 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쉬는 자동차 기술, 데이터 클라우드와 서비스를 통합해 스마트 교통수단 인프라 등에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향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테슬라, 구글, 이륜차 제조사와 카 셰어링 사업자 등이 모빌리티 솔루션의 고객이 될 전망이다.

폴크마 덴너 보쉬그룹 회장은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동화(automation), 전기화(electrification), 연결성(connectivity) 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자율 주행은 운전자 조력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 서서히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델파이는 '제스처 컨트롤' 기술을 선보였다.

운전자가 손을 흔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면 차량이 원하는 바를 감지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IAA에 전시 중인 BMW 7시리즈에 내년부터 탑재될 예정이다.

운전자는 중앙 콘솔을 보고 만지지 않아도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지도 크기를 조절하며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손과 팔의 제스처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컨트롤해 실질적으로 차량과 소통하는 수화(sign language)로 기능한다.

제스처 컨트롤은 운전자의 음성, 시선, 제스처, 터치 등 다양한 감지 옵션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부문 외에도 자동차용 소재부문과 올해 5월 마그나로부터 인수한 배터리 팩 생산법인 SDIBS(Samsung SDI Battery systems)가 함께 참가했다.

삼성SDI는 배터리 셀의 풀 라인업을 비롯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순수전기차(EV)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표준형 모듈을 선보였다.

또 SDI는 BS의 기술력으로 새롭게 개발한 고성능 팩과 팩 높이를 낮춘 'LOW 팩'을 소개했다.

삼성SDI의 주요 고객은 BMW를 비롯해 아우디 등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삼성SDI는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을 개시한 지난 2009년 이래 올해까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총 30여건 이상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가운데 유럽지역 메이커로부터의 수주는 50%가 넘는다.

조남성 삼성SDI 사장은 "이번 모터쇼를 계기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에 우리의 기술 로드맵과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일 것"이라며 "배터리 기술의 진보를 통해 주행거리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기아 스포티지, 폭스바겐 티구안 제쳤다

예술점수 90점 등 호평 수퍼카 톱 20 중 4위 올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사진)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 수퍼카 톱 20 중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차는 23일 독일 권위의 자동차 전문잡지 아우토빌트(Auto Bild)지가 IAA 최근호에서 수퍼카 톱 2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아우토빌트지는 IAA에 전시된 차량들을 디자인과 성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매겼다.

스포티지는 디자인과 혁신성을 평가한 예술점수에서 90점을 받았다.

파워트레인, 섀시, 인테리어 등을 평가한 기술점수에서는 80점을 받아 평균 85점의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포르쉐 미션E(100점), 재규어 F페이스(95점), BMW 7시리즈(90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점수다.

스포티지는 이번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폭스바겐의 신형 티구안(80점, 6위)을 제쳤다. 내년 1월 유럽시장 판매를 앞두고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토빌트지는 스포티지 관련 기사의 제목을 '티구안을 성가시게 하는 차'라고 표현했다.

스포티지가 티구안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우토빌트지는 총평에서 스포티지에 대해 "한국차는 점점 과감한 디자인과 인상적인 성능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포티지는 이 점을 입증하고 있다"며 "시선을 사로잡는 외장 디자인과 우수한 파워트레인 성능은 티구안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정필 기자



"신형 아반떼, 직접 몰아보세요"

현대차

20대 고객 시승 이벤트 내달 12일~12월 8일까지

현대자동차는 10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29개 시승센터에서 20대 고객 대상 '신형 아반떼'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20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시승센터별 시승 희망 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필 기자

효성, 현충원서 나라사랑 정신 기린다


23일 효성 임직원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국군의 날 맞이 묘역정화

효성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23일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효성나눔봉사단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겼다.

이어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9묘역을 찾아가 묘비 닦기, 잡초 제거, 헌화 등의 묘역정화활동을 펼쳤다. 9묘역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과 경찰관 총 627위가 안장된 곳이다.

이날 효성의 충청지역 사업장(세종·옥산·대전 공장)에서도 효성직원들이 대전시 유성구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이들은 자매결연묘역이자 장·사병이 안장된 403묘역에서 1사1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정필 기자

아시아나, 해외 기내식조리사 초청 한식교육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22~23일 인천국제공항 지원단지 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서 해외 기내식업체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식 교실을 실시했다.

아시아나는 매년 취항 중인 노선의 해외 기내식업체 조리사를 국내로 초청해 한식 조리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 총 5개 지역 6명의 조리사를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 해외 조리사는 불고기, 비빔밥, 쌈밥 등의 조리법을 배운 후 실습을 통해 조리 과정을 익혔다.

향후 아시아나의 해외 출발편에 한식 기내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시아나는 2007년부터 해외 기내식업체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식 교실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정필 기자

황창규 KT회장 "4차 산업혁명 주도 할 것"

ICT 융합서비스로 2020년 매출 5조 달성

"ICT(정보통신기술)와 제조업의 융합으로 만들어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하겠다."

황창규 KT회장은 23일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빌딩 올레스퀘어에서 대한민국 통신 130년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표하며 황 회장은 '금석위개(金石爲開)'에 빗대 취임 후 1년 8개월 동안 KT의 변화에 대해 "절박한 마음으로 화살을 쏘니 단단한 바위를 뚫었던 것처럼 경영정상화를 위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KT는 그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KT렌탈, KT캐피탈 등 주요 계열사를 매각했다. 계열사 수는 지난해 56개사에서 올해 38개사로 줄었다. 계열사 매각으로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회장은 무엇보다도 그룹 임직원들의 자신감 회복을 높게 평가했다. 황 회장은 "임직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 기업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고자 했다"며 "스스로도 이렇게 빨리 바뀔지 예상 못했을 만큼 절박하게 달려왔다"고 회고했다.

KT는 이날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융합 시대를 맞아 KT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황 회장은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제조업과 ICT의 융합을 근간으로 산업과 산업을 융합하고 더 나아가 사람 개개인의 생활까지 확장된 (이종 범위간의) 융합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의 단계가 오는 4차 산업혁명을 KT가 주도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황 회장은 지능형 기가 인프라 구축과 ICT 융합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다.



황창규 KT회장이 23일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KT 제공

그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고자 2020년까지 13조원을 투자해 '지능형 기가 인프라(Intelligent GiGA Infra)'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능형 기가 인프라는 최첨단 관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기술이다. 기업에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기가오피스'나 휴대형 보안 플랫폼 '위즈 스틱' 등이 그 예다.

올해 말에 상용화 예정인 위즈스틱은 파밍 사이트 접속과 웹캠 해킹과 같은 문제를 네트워크 차원에서 원천 차단하며, 지문 인식 기능을 활용해 별도의 아이디 없이 통합 인증이 가능하다.

황 회장은 "2020년 10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보안 서비스 시장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약 285조원으로 추산되는 글로벌 보안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능형 기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에너지, 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미디어, 사물인터넷(IoT), 건강 분야의 융합서비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황 회장은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형 서비스 분야에서 2020년까지 5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2020년까지 해외에서 2조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과거 통신 사업자의 국외 진출은 망을 깔거나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한계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보안 솔루션, 빅데이터 등을 매개로 국외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ICT 융합형 서비스 등으로 2020년 글로벌에서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LGU+ "홍콩 야경 실시간 공유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와' 일본·홍콩·싱가포르서 가능

LG유플러스는 통화 중 스마트폰 화면, 음악, 카메라, 위치 등을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와(Uwa)'를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3개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넓혔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추석을 맞아 '유와'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와를 쓰면 상품권이 추석선물로 와유" 이벤트를 다음달 9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유와의 ▲보면서 통화 ▲공유 ▲위치 보내기 등의 기능을 사용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1명), 5만원권(4명), 아메리카노 교환권(300명)을 증정한다. /정문경 기자



다음 뺀 '카카오' 임지훈 체제 공식 출범

젊고 유연한 신규 CI 공개 글로벌 트렌드 워드마크

kakao

다음카카오가 회사명을 '카카오'로 바꾸고 임지훈 단독대표(35) 체제로 돌입했다.

다음카카오는 23일 제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임지훈 신임 대표 선임안과 사명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1년 만에 간판인 사명과 대표를 모두 교체했다.



임 대표는 "한 달 여 시간 동안 조직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임직원들과 폭 넓게 소통하며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왔다. 모바일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속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 경쟁력이 잘 발휘되도록 혁신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카카오는 같은 날 사명 변경과 함께 신규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했다. 새롭게 개발된 이번 CI는 젊고 유연한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를 반영했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워드마크를 사용했다.

또 카카오를 대표하는 색상이 자 카카오 서비스들을 통해 사용자에 친숙해진 옐로우를 전면에 내세웠다. 신규 CI를 통해 모바일 생활 플랫폼 기업으로서 카카오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정문경 기자

SK주식회사 C&C, 스마트 카드 라인업 강화

SK주식회사 C&C가 23일 글로벌 IoT 시장을 겨냥해 고객 서비스별 스마트 카드 제품 라인 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SK주식회사 C&C는 IoT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본 제품은 '지그비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카드'를 비롯해 사물간 통신에 중점을 둔 'M2M심(SIM, 가입자식별모듈)카드', '웨어러블용 스마트 카드' 등 다양한 스마트 카드 제품군(群)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최근 떠오르는 스마트 가전 시장을 겨냥해 보안·인증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카드도 개발 중이다.

SK주식회사 C&C는 2010년 스마트 카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35만매의 다양한 유심카드를 국내외 통신사에 공급해왔다. 올해에도 국내 이동통신사와 MVNO(알뜰폰)는 비롯해 미국, 싱가폴 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업체에 230여만매의 유심카드를 공급했다. /정문경 기자

SKT-삼성전기,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 개발 협력


23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기 본사에서 허일규 SK텔레콤 솔루션사업본부장(오른쪽)과 정대영 삼성전기 전략마케팅실 상품기획팀장이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 기반의 사물인터넷 상호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삼성전기와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 관련 상호양해각서(MOU)를 23일 체결했다.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은 통신 반경이 수십km로 넓고, 전력 소모가 적어 단말 배터리 수명이 수년간 유지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기술이다. 온도, 습도, 무게, 위치 등 단순 정보를 측정해 처리하는 소물(小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에 최적화된 응용모듈을 개발하고, 자전거 관제·위치 추적 솔루션, 스마트 가로등 관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응용모듈이란 컴퓨터로 보면 CPU를 포함한 메인보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단말을 작동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해, 통신망을 활용한 단말 제어가 가능하다.

양사는 이 응용모듈을 활용해 사물인터넷 사업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별도의 모듈 개발비 없이 사업 환경에 맞는 센서 등을 부착, 손쉽게 하나의 완성된 단말기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전기차株 '환호'

전세계 車·부품업체주는 동반 하락
유럽·국내에는 반사이익 확실해져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폭스바겐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반면 연비 부담이 덜한 전기차 업종이 수혜주로 떠오르며 자동차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내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주가 급등했다. 피앤이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1270원(29.81%) 오른 5530원을 기록했고 상신이디피가 940원(29.94%) 상승한 4080원, 뉴인텍은 375원(30%) 오른 1625원으로 나란히 상한가를 쳤다.

아울러 2차 전지 생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도 14.42% 오른 8410원, 에코프로는 11.43% 상승한 9070원을 기록했다. 피엔티(4.65%), 엠케이전자(2.56%) 등 전기차 관련주도 상승세에 동참했다.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 사업 업체인 삼성SDI(3.03%)와 LG화학(3.10%)도 폭스바겐 사태의 반사이익으로 나란히 3%대 상승했다.

전기차 관련주가 수혜주로 떠오른 사이 폭스바겐을 비롯한 전세계 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들은 동반 하락했다.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주가는 각각 2.79%, 1.93% 하락했다.

마켓워치는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여파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날 자동차 관련 주식의 급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사태 당사자인 폭스바겐 주가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19.82% 급락했다. 폭스바겐 주식은 전날에도 19%나 떨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은 250억유로(약 33조1200억원)가 증발했다.

폭스바겐에게 부품을 납품 중인 미국 보그워너의 주가는 7.6% 떨어졌고, 또 다른 부품 업체인 테네코의 주가도 6.3% 하락했다. 퍼셉트론(-6.63%), 젠텍스(-2.76%) 등 관련 업체도 피해를 봤다.

폭스바겐은 현재 차량에 배기가스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8일 일부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가 미국에서 배출가스 검사 회피 기능을 가진 채 판매돼 왔다며 미국서 팔린 48만2000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업계에서 리콜 사태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폭스바겐의 리콜은 자동차 결함이 아닌 '속임수'에 의한 것이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이 폭스바겐·아우디 외의 다른 브랜드 차량 성능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미국 외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도 잇따라 관련 조사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 초 폭스바겐 디젤차 4종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유로6'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이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폭스바겐 리콜 사태는 장기적으로 디젤 엔진의 신뢰성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디젤 엔진의 규제 부담이 커지고 표시 연비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어 "현대기아차가 누리는 반사이익의 규모를 산정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긍정적인 방향성만은 뚜렷하다"며 "특히 유럽과 국내에서는 반사이익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KDB대우證, 창립45주년 행사 "진짜 PB가 돼 달라"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은 23일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45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고객에게 우리의 경험, 연구와 판단을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진짜 PB가 돼 달라"며 임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이날 홍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자·우수부서 포상, 임직원 윤리준법 서약식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KDB대우증권 제공

신흥국, 기준금리 동결에도 환율 상승세 여전

통화가치 추락 계속돼
부도 위험지수도 급등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신흥국 화폐가치는 계속 추락하고 부도위험 지수는 급등하고 있다.

23일 국제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상당수 신흥국의 화폐가치가 추락을 거듭하면서 달러화 대비 환율은 과거 위기 수준을 뛰어넘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흥국 환율 상승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지난 18일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했지만 다시 뛰어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전날보다 0.75% 오른 달러 당 4.3042 링깃에 거래되면서 지난 8일 기록한 고점(4.3393 링깃)에 다시 바짝 다가섰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일어난 지난 1998년 1월 4.7700 링깃보다 10% 낮은 수준이다.

링깃화는 지난 18일 대비 2.6% 뛰었으며 작년 말에 비해서는 23.1%나 치솟았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도 달러 대비 환율이 14,552 루피아로 전날보다 0.46% 상승하면서 1998년 7월 중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당시 최고점 16,525 루피아 수준에 점차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심리적 지지선인 현재 수준을 방어하려고 개입하고 있지만, 미 금리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투기등급으로 추락한 브라질의 헤알화는 22일(현지시간) 현재 달러 당 4.0503 헤알로 지난 2002년 고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S&P에 이어 피치와 무디스도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는 설까지 퍼지고 있다. 헤알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올해 들어 52.4%나 뛰었다.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최고치까지 갱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CDS프리미엄은 지난 22일 현재 206.50bp(1bp=0.01%포인트)으로 전날(187.78bp)보다 10%나 올라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금리가 동결되기 직전인 지난 17일의 168.80bp에 비해 37.70bp(22.3%)나 급등했다.

인도네시아는 245.00bp로 전날보다 6.76% 올랐고 태국도 151.50bp로 7.45% 상승했다.

중국의 CDS 프리미엄은 전날보다 4.61% 오른 121.00bp로, 전고점인 지난 1일의 122.29bp에 다가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 금리 동결 이후 CDS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 지난 17일 이래 사흘간 11.5bp(10.5%) 올랐다. /차기태 기자

안정·수익성 좋다더니… ELF 수익률 하락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 주가연계펀드(ELF)를 선택한 투자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23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공모형 ELF의 평균 연초 이후 수익률은 -14.26%를 나타냈다.

단기 성과를 봐도 1개월과 3개월 수익률이 각각 -6.23%, -15.77%로 저조했다.

ELF는 증권사들이 파는 주가연계증권(ELS)처럼 기초 자산인 지수나 개별 종목 주가가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주는 상품으로, 운영 주체가 자산운용사이고 주로 은행을 통해 팔리는 점이 ELS와 다르다.

ELF의 수익률 저하는 기초 자산으로 많이 쓰이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와 대형주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개별 펀드별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기초 자산으로 구성한 '메리츠2스타주가연동증권투자신탁SL-1'의 6개월 수익률이 -38.84%로 가장 낮았다.

설정일인 2003년 3월5일 7만7800원이던 LG전자가 주가가 이달 21일 4만6400원으로 40% 넘게 빠져 평가 수익률이 곤두박질친 탓이다.

'동부2스타주가연동SL-2(ELS-파생)'(-38.23%), '하이2스타주가연동LKM-1(ELS-파생)'(-34.12%), '교보악사우리청춘100세HE-1(ELS-파생)'(-19.11%), '신한BNPP프리미어SHE-2(ELS-파생)'(-19.04%)도 수익률이 하위권을 맴돌았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계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포장, ELF를 대량 판매했다.

ELF 설정액은 현재 2조4168억원에 달하지만 순자산은 1조99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차기태 기자

유안타證, 120억 규모 ELB 1종·ELS 2종 공모

유안타증권은 오는 25일까지 ELB 1종, ELS 2종을 총 12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ELB 50호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만기 1년 6개월의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KOSPI200지수가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100%)의 120%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으면 1%를, 최초기준가격(100%)의 120%이하면 최대 11.80%를 지급한다. 또 최초기준가격(100%) 이하일 경우에도 1%를 지급한다.

ELS 3445호는 S&P500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각 최초기준가격을 만족시킬 경우 연 6.00%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ELS 3446호는 KOSPI200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각 최초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연 6.40%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88-2600)에 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3896억 분식회계’ 대우건설 과징금 20억

외부감사 법인도 10억여원 임직원 고발 조치는 없어


대우건설 사옥 전경.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23일 대우건설에 대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12월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건설이 3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적된 사업장은 10곳으로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지적한 2450억원과 서울시 합정동 사업장 1446억원을 더해 산출됐다.

합정동 사업장은 세 차례에 걸친 감리위원회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증선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날 세 번째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대우건설은 시행사가 미분양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평가해 예상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공고된 상가분양 금액보다 분양 수입을 더 높게 평가하거나 지난 2012년말 2년이 넘도록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실제 분양된 평당 분양 수입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사의 상환능력을 과대 평가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대우건설 현직 대표이사인 박영식씨에게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 기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1년, 코스닥상장사 제외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양형 기준을 고려해 전·현직 임직원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박상길 기자 sweatsk@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뚝’

2분기 전분기比 23.8%P↓ 현대라이프·MG손보 최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 여력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시적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이익이 줄어든 반면에 저금리 장기화로 역마진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78.2%로 3월 말(302.1%)보다 23.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3년 6월 말(273.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3월 말보다 28.2%포인트 하락한 291.9%, 손보사가 14.4%포인트 떨어진 250.9%를 각각 기록했다.

비율이 제일 낮은 곳은 생명보험업계에선 현대라이프(118.9%), 손보에선 엠지손보(116.5%)였다.

2분기에 일시적인 유럽의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에 따라 채권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채권평가이익이 5조7천억원 넘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가용자본은 4조7천억원(4.5%) 감소했다.

또 일시적인 시장금리 상승에도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금리 역마진 위험이 증가하면서 요구자본이 1조3천억원(3.7%) 늘어난 것도 한몫을 했다.

그렇지만 보험업법이 정한 기준치인 100%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RBC 비율 하락 등 건전성이 우려되는 일부 보험사에 대해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KEB하나은행, ‘2015 추석 행복 나눔’ 지원 물품 전달 KEB하나은행 구미역지점과 구미중앙지점 직원들이 21일 경북 구미시 지산동 소재 ‘꿈을 이루는 사람들(외국인근로자 쉼터)’을 방문, ‘2015 추석 행복 나눔’ 지원 물품을 전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제공

성실상환자 위한 16% 고금리 적금

미소드림적금, 이달 말부터 신청접수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초고금리 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이 이달 말 출시된다.

미소금융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창업·운영 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지 3개월을 맞아 이 같은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애초 방안에 담았던 미소드림적금의 상품설계를 끝내고 이달 말부터 미소금융재단(전화 1600-3500)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일수 10일 이하)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대상자를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5년까지 저축하면 미소재단이 매월 해당 저축액의 3배를 최대 3년간 매칭해 쌓아주는 개념으로 이자수입을 늘려주는 형태다.

이자율은 만기 기준으로 1년 3.6%, 2년 3.8%, 3년 이상 4.0%로 현재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2배가 넘는다.

만기가 되면 본인저축액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저축액과 미소재단 매칭금액에 따른 이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세전 기준으로 총 448만원(본인저축 360만원+본인이자 22만원+미소지원이자 6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실질금리로 연 16%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을 위해 우리·국민·신한·KEB하나·기업 등 5개 은행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미소재단과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차기태 기자

‘빚 내서 집사느라’… 2분기 가계 여유자금 감소

1분기比 4조7000억 줄어

금융기관에 맡긴 돈보다도 가계 빚이 더 크게 늘어나 가계 여유자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자금순환' 자료를 보면 올 2분기(4~6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4조9000억원으로 1분기(1~3월)의 29조6000억원에 비해 4조7천억원 줄었다.

자금잉여는 예금이나 보험, 주식 투자 등으로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것으로, 통상 가계 부문의 자금운용액은 자금조달액보다 크다.

2분기 가계의 자금잉여 감소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1분기 12조7000억원에서 2분기 37조3000억원으로 24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 빚이 늘면서 여유 자금이 줄어든 것이다.

가계 소득은 줄었는데 가계가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돈은 오히려 늘어났다.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예금이나 보험, 주식, 채권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의 증가액은 61조8000억원으로, 1분기의 43조7000억원과 비교해 18조1000억원 늘었다.

한편 비금융법인기업 부문은 설비투자 확대 수요 등으로 차입금이 늘면서 자금부족 규모가 1분기 4조4000억원에서 2분기 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2분기 중 금융법인이 국내 비금융 부문에 공급한 자금은 총 58조1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차기태 기자

KDB생명

스마트폰으로 가입하세요 모바일KDB다이렉트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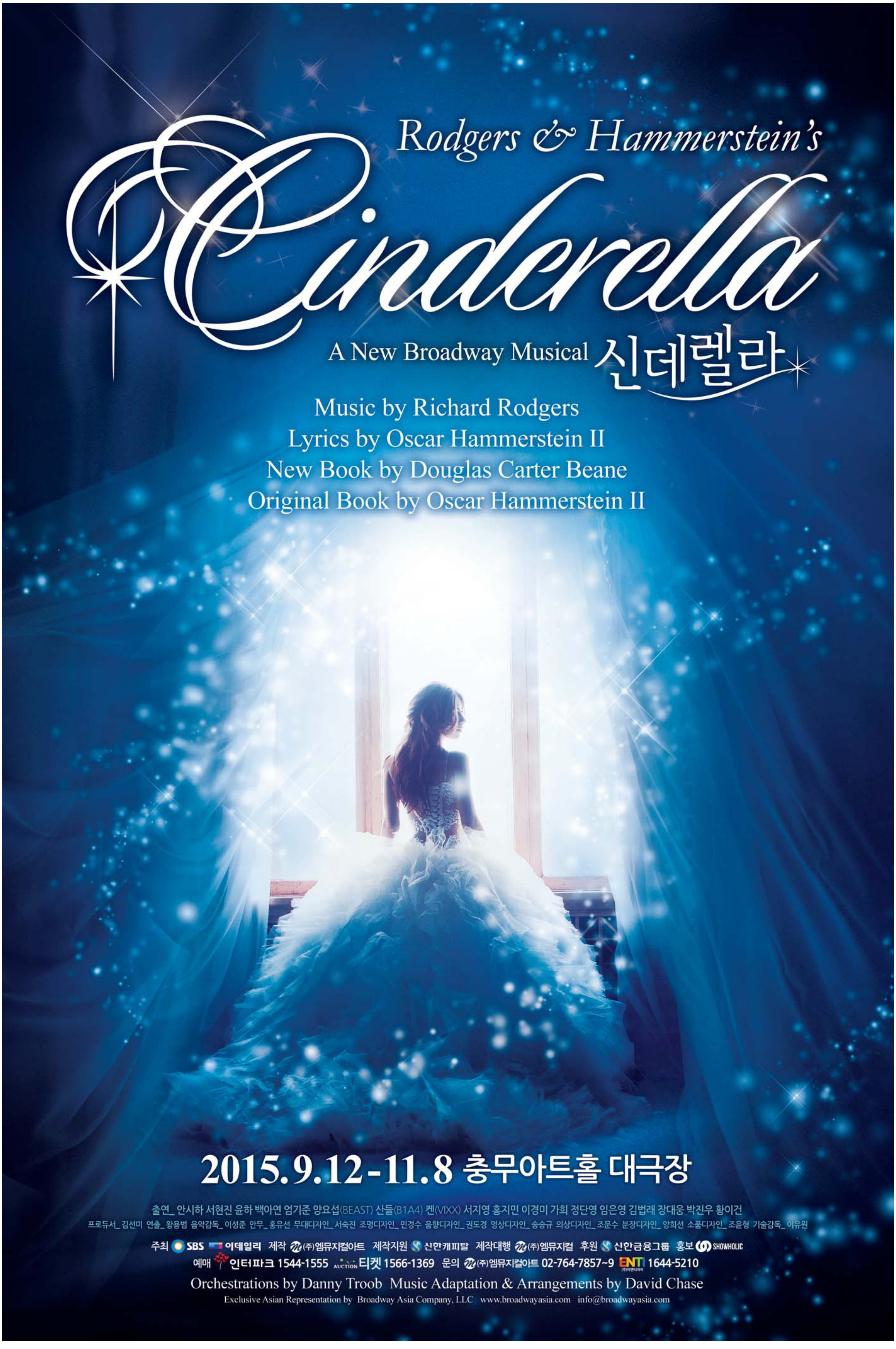
KDB생명은 23일 스마트폰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KDB다이렉트보험'을 출시했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면 24시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가입 절차가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일부 가입절차를 진행한 후 PC나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을 하면 청약이 완료될 수도 있다. 반대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일부 가입절차를 밟고 고객센터를 통해 청약을 마무리하는 서포트 서비스도 있다.

가입 단계별로 입력한 내용은 PC와 스마트폰 등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최대 30일간 저장된다.

모바일 보험 출시를 기념해 KDB생명은 가상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KDB다이렉트보험(http://direct.kdblife.co.kr/m)에 접속해 모바일 보험가입을 체험해는 행사다. 내달 13일까지 이벤트에 참여자 중 선착중 300명에게는 매일 기프티콘이 경품으로 증정된다. /차기태 기자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아파트 닮은 오피스텔, 주거문화 새바람

'원룸형' 고정관념 깨고 아파트 평면과 '붕어빵'

커뮤니티·조경시설 풍부 친환경 설비 관리비 절감 실수요자 몰려 청약 후끈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 오피스텔 투시도.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인 오피스텔이 업무용보다는 주거시설로서 자리잡아가면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오피스텔 주거기능 강화에 힘쓰면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오피스텔의 아파트화'다. 아파트 평면과 똑같은 오피스텔이 나오는가 하면 대단지 아파트와 맞먹는 커뮤니티시설부터 조경과 친환경 에너지 설비까지 특징이 다양하다.

올해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파트 평면과 붕어빵인 주거형 오피스텔 열풍이다.

'오피스텔 = 원룸' 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2~3개의 침실과 안방 드레스룸, 아파트에나 도입되던 4베이 설계 등 중소형 아파트와 다름없는 주거형 오피스텔들이 공급되며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광교 아이파크', '킨텍스 꿈에그린' 등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된 오피스텔들은 모두 아파트를 닮은 주거형 오피스텔이란 공통점이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7월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한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는 전실을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구성됐다. 평균 23.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마감된 이 오피스텔은 침실 3개와 욕실 2개, 주방 다용도실과 안방 드레스룸이 마련돼 일반 아파트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타입별로 4베이-3룸 설계와 테라스 공간이 조성되는가 하면 이면개방형 설계로 개방감과 채광을 강화했다.

분양가는 동일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 전용 59㎡에 비해 최대 5000만원 저렴하다.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위례 우남역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전용 19~74㎡, 434실)은 원룸부터 스리룸까지 다양하다. 일부 가구는 이면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환기와 조망, 개방감이 뛰어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거형 오피스텔 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저금리 기조에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2~3인 가구 등이 아파트와 동일한 생활이 가능한 주거형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피스텔 내부 평면 못지않게 단지 안팎 주거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직장주거지 근접성이 오피스텔의 주요 경쟁력으로 통하던 때에는 인근 주거환경이 열악한 '나홀로 오피스텔'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규모로 조성돼 대단지 아파트에 버금가는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시설이 갖춰지는가 하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도입돼 관리비 절감도 뛰어난 단지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주로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업 규모가 크고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복합단지의 특성상 자금력과 시공능력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들이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복합단지에 조성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브랜드와 상품성이 우수한 것은 물론 대단지로 조성되는 단지 내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복합단지내 1만150실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광명역 파크자이 2차(전용 21~37㎡, 432실), 동탄 린스트라우스 2차(전용 미정, 332실)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조성 중인 '롯데캐슬 골드파크'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은 960실 규모의 대단지로 공급된다.

롯데건설이 지난 11일부터 분양에 돌입한 '롯데캐슬 골드파크 타워 960' 오피스텔은 전실을 전용 21~33㎡의 소형 오피스텔로 구성했다.

타입별로 스튜디오형과 원룸형, 테라스형 등 단조로운 오피스텔 평면을 탈피하면서도 최고 39층의 고층 단지로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편의시설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도입된다.

단지에는 북카페와 코인세탁실, 회의실은 물론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G.X ROOM 등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된다. 또한 옥상정원과 전망휴게소 등 생태면적률 35%가 자연 친환경 단지로 꾸며진다. 이외에도 LED조명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대기전력차단 시스템과 실별온도조절 시스템 등을 도입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우수하다.

업계에서는 웰빙과 힐링 바람이 불면서 과거 아파트 시장에서 혁신 평면으로 불리던 4베이, 알파룸, 가변형 벽체 등이 보편화돼가는 것처럼 주거기능을 강화한 오피스텔의 아파트화 트렌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신분당선 연장·GTX 가시화… 용인 부동산 '훈풍'

개발 호재 거래량 1000건 껑충 집값 15개월 새 2000만원 올라



신동백 동도센트리움 조감도.

제2판교테크노밸리착공과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예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시화 등 개발 호재를 탄 용인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용인은 대표적인 버블세븐 지역 중 한 곳으로 침체기를 겪었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경기부양책과 대규모 개발 호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2단계 구간(정자~광교) 공사가 내년 2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환승없이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광역 교통 호재도 눈에 띈다. 현재 KTX 혼용구간으로 삼성역~동탄역 구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이 개발되고 있다. 이 중 분당선 용인 구성역 인근이 GTX 역사로 선정돼 일대의 광역교통망이 편리해진다.

지역도시개발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도심인 처인구를 개발하는 역북·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근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이 만나는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24만7765㎡ 규모의 기흥역세권에는 5100가구의 주거 단지와 상업 시설,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다.

개발 호재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1307건이었던 거래량은 1년 후인 지난 7월 2371건으로 1000여 건 증가했다.

집값도 상승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억5736만원이던 매매가 평균이 15개월 연속 꾸준히 올라 지난달 3억7814만원으로 2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3월 용인 풍덕천동에서 분양된 'e편한세상 수지'는 평균 8.3대 1의 청약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고 1237가구가 3일만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분양시장의 상승세로 용인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동도건설은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일대에 '신동백 동도센트리움'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22~36㎡ 소형아파트 254가구다.

분양가는 1억원대로 형성돼 있다.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용인경전철 어정역이 있어 분당선 기흥역(구 구갈역)에서 환승하면 서울 강남과 수도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 '성복역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하 34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아파트 2356가구 규모다. 84㎡이하 중소형이 약 85%를 차지하며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다.

대림산업은 10월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공급할 계획이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일반분양분만 해도 6800가구에 이르는 대형 단지이며 단일 분양 단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박상길 기자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 건설기계부문 세계 1위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은 최근 발표된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DJSI의 업종 선도기업은 각 산업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 기업을 선정하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후로는 3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GS건설

안양 열병합발전소 공사 수주 6000억 규모 2021년 말 준공

GS건설(대표 임병용)은 GS파워 주식회사와 5995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S파워 안양사업소 열병합발전소 2호기 건설공사 수주계약을 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9조4875억5163만원의 6.32%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CJ CGV, 中 진출 10년 만에 50호점 돌파

상하이 등 8개 도시에 401개 스크린… TOP5 목표
'컬처플렉스' '특별관' '상생' 기반 차별화 전략 비결

CJ CGV(대표이사 서정)가 중국 진출 10년 만에 'CGV 중국 50호점' 시대를 열었다.

CJ CGV는 23일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 CGV 중국 50호점인 'CGV 포산 동핑신청'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극장은 아이맥스(IMAX)를 포함해 총 10개관 1839석을 갖췄다. 포산시 내 오피스, 관공서 등이 밀집한 금융과 교통의 중심지인 동핑신청 싱야오몰 2~4층에 있다.

CJ CGV는 국내 멀티플렉스 기업 중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했다. 2006년 1호점 CGV상하이따닝을 오픈한 이후 10년 만에 상하이·베이징·우한·텐진 등 28개 도시에 총 50개 극장, 401개 스크린을 갖추게 됐다.

이러한 상영관 수의 양적 확대는 경영 성과로 이어졌다. 중국 영화전문매체 엔트그룹(Entgroup)이 발표한 중국 내 박스오피스 기준 극장 사업자 순위에 따르면 CJ CGV는 2012년 말 22위에 머물렀으나 2014년에는 그 순위를 10위권으로 끌어 올렸다. 2015년에는 1월 톱 9에서 5월 톱 7로 차례로 순위가 등극하며 TOP 5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박스오피스 순위의 상승만큼 성장률도 주목된다. 지난해 CGV 중국 38개 극장에서 약 1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CJ CGV는 올해 이미 오픈한 12개 극장을 포함해총 26개 극장을 추가해 전년 대비 2배 신장한 약 2100여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2분기에는 중국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관람객 수도 2012년 연간 535만명에서 올 상반기에만 1147만 명을 불러 모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63%가 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거뜬히 2000만 관객을 돌파할 전망이다.



CGV 중국 극장에서 대기 중인 관객들의 모습. /CGV베이징 이디강

CJ CGV 측은 중국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로 '컬처플렉스' '특별관' '상생'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먼저 '컬처플렉스'라는 패러다임을 중국에 도입해 프리미엄 극장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중국 내 여느 극장 사업자들을 뛰어넘는 특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영화 관람 외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선사한 것이다.

CG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관 역시 차별화된 경쟁력에 필수 요소로 손꼽힌다. 특별관들을 통해 최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불법 해적판이 넘쳐나는 중국에서 관객들에게 꼭 영화관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 내 가장 인기있는 특별관 'IMAX'는 물론 CGV가 세계 최초로 론칭한 오감체험상영관 '4DX', 몰입도를 극대화한 반구(半球) 형태의 특별관 '스피어X', 프리미엄 상영관 '스윗박스', 진동석 '비트박스' 등을 도입해 중국 현지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고객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토토의 작업실'을 통해 현지 청소년들의 영화 교육에 힘쓰고 있다. 또한 극장운영 전문가 양성센터인 CGV 대학을 설립해 고객 서비스 강화에 주력한 것도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CJ CGV는 올해와 내년을 중국 사업 턴어라운드의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 올해 중국 내 극장 수를 64개, 내년에는 80개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CJ CGV의 현재 국내 직영 극장수가 83개 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극장수가 한국을 넘어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고히 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서정 CJ CGV 대표이사는 "CJ CGV는 올해 중국 시장 조기선점과 안정화를 통해 내년 안에 중국 시장 TOP 5를 목표로 빠르게 나아갈 것"이라며 "중국을 넘어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NO.1 컬처플렉스'로 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롯데면세점 승부수…"1300만 관광객 유치"

'비전2020' 발표
시내면세점 입찰 공식화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이 향후 5년간 외국 관광객 1300만명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비전 2020'을 23일 발표했다.

올해 12월 22일과 31일 각각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 마감일인 25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비전2020에서 롯데면세점은 단일 매장 기준 세계 1위의 면세점인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에서 2020년까지 1300만명의 외국 관광객을 직접 유치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0만, 2017년 240만, 2018년 270만, 2019년 300만, 2020년 340만명으로 연평균 14%의 성장률이다.



롯데면세점이 위치한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면세점 제공

이를 위해 세계 12개 지점 19개 영업사무로를 기반으로 한류스타 콘텐츠 상품 개발, 해외 관광박람회 개최, 크루즈 관광 상푸 개발, VVIP 퍼스널 쇼핑 컨시어지(관광객 트렁크 및 여행가방 보관서비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롯데 면세점이 직접 유치한 외국 관광객은 155만명으로 연간 전체 방한 외국(1420만명)의 10.9%에 달한다.

롯데면세점 측은 서울 관광 지역내생산(GRDP)의 20%에 해당하는 19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업계 최다인 9만6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강남역·가로수길·코엑스몰·석촌호수·올림픽공원 등 강남의 주요 관광 거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남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시티투어버스도 별도로 운영해 외국 관광객을 강남으로 적극 유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명동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는 롯데백화점 본점 입구에 있는 '스타에비뉴(Star Avenue)'에 초대형 LED 디지털 터널을 설치해 관광 명소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롯데백화점 본점 건물 외벽을 활용해 미디어 파사드쇼(건물 전체 외벽에 빛을 사용해 이미지와 의미를 만드는 미디어 아트)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파리바게뜨, 한국민속촌과 함께하는 추석 선물 세트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 오전 서울 파리바게뜨 종로시그니처점 앞에서 모델들이 한국민속촌과 파리바게뜨의 협업제품인 2015년 추석선물을 선보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찹살떡 세트와 디저트 약과 등을 포함한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연합뉴스

유명 패스트푸드점, 위생상태 엉망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위생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주요 패스트푸드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전국 주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300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2011년 55건, 2012년 67건, 2013년 74건, 2014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32건이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롯데리아가 127건으로 42.3%를 차지했다. 이어 맥도날드 71건(23.7%), 맘스터치 46건(15.3%), 파파이스 27건(9.0%) 버거킹 16건(5.3%), KFC 13건(4.3%) 순이다.

롯데그룹
'글로벌 생활명품' 매장 오픈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쇼핑몰 3층에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생활명품' 편집매장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매장 오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롯데그룹이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진행한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양측은 6월 전국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패션이나 가구 등 분야의 우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상품 1389개를 응모받은 뒤 품평회 등을 통해 30개를 최종 선정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이베이코리아
'사회적기업 우수상품 기획전'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은 연말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경기도 30여 개 기업에서 생산한 식품·주방·유아동·가전·교육상품 등을 최대 40%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쿠첸 'PG06' 하이마트 입점 23일 서울 롯데 하이마트 잠실점에서 쿠첸 사내모델이 'PG06'을 소개하고 있다. IH압력밥솥 'PG06'은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이룬 제품으로, 가마솥 공법으로 만든 '명품철정 엣지(Edge)' 내솥이 적용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기능이 추가된 6인용 밥솥이다. /연합뉴스

CJ오쇼핑, 협력사 제품 품질향상 팔 걷어

CJ오쇼핑(대표 김일천)은 FITI시험연구원과 업무 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의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업무 제휴의 주요 내용은 FITI 시험연구원을 통해 협력사 품질검사 지원과 기술컨설팅, 정보교류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CJ오쇼핑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특히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협력사의 품질검사비용 절감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CJ오쇼핑 패션·잡화·침구 부문의 협력사들은 소비자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품질검사비용을 최대 45%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술 컨설팅과 세미나개최 등을 통해 안전·품질 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각종 협력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카페베네, 최승우 대표 선임… 전문경영인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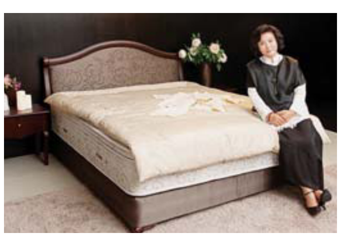
카페베네는 전문경영인 출신 최승우(53·사진)씨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사장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소니코리아 본부장, 한국보랄석고보드 부사장, 웅진식품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카페베네는 전문 경영 체제를 통해 치열해지는 시장 속에서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계획이다.

창립자인 오너인 김선권 회장은 일상적인 경영에서는 한걸음 물러나 글로벌 프랜차이즈로의 도약을 위한 해외 사업방향의 수립과 기업의 성장동력의 발굴 등 카페베네가 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에이스 침대,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와 컬래버



에이스침대(대표 안성호)가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콜라보레이션 침대인 'BSA-132' 제품은 헤드보드에 천연 무늬목 등의 소재가 사용됐으며 곡선디자인이 특징이다.

BSA-132는 이날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이영희 전(展)-바람·바람' 전시 현장에서 30조 한정으로 예약 판매될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세븐일레븐 'PB 과일맛 감자스낵' 2종 출시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새로운 PB상품인 'PB 과일맛 감자스낵' 2종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PB 과일맛 감자스낵 2종은 'PB감귤감자칩'(63g·사진)과 'PB바나나감자칩'(63g)이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감귤감자칩과 바나나감자칩은 바삭한 감자칩에 감귤과 바나나 시즈닝으로 맛을 내 고소하면서도 과일의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1500원이다. /김성현 기자

화장품업계 "유커 잡아라"

명동 매장 인테리어 새단장
실속파 겨냥 특별세트 마련
中 국경절 방한객 잡기 총력

화장품업계가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 기간 방한하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을 찾은 유커는 메르스 여파로 6월 31만5000여명, 7월 25만5600여명까지 급감했다가 8월 들어 51만명을 넘으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 국경절 기간에만 방한할 유커가 약 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스로 인해 여름성수기를 놓친 화장품업계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커가 많이 찾는 지역의 매장 인테리어를 바꾸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또 실속파 유커를 겨냥한 다양한 기획세트도 준비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추석을 앞두고 화장품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의 서울 명동 중앙로점 매장을 새단장하고 최근 오픈했다.

새로워진 더페이스샵 명동 중앙로점 매장은 순수한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했던 기존 매장과 달리 모던함과 클래식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매장 외관과 내부는 골드와 화이트 컬러로 현대적이고 깨끗한 느낌을 더했다. 매장 입구 천장에는 자연과 클래식함이 어우러진 황금빛의 샹들리에를 장식해 주목을 끈다.



더 페이스샵 명동 중앙로 매장. /LG생활건강 제공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번 새단장으로 기존 브랜드숍과 매장을 차별화한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숍 이니스프리도 최근 명동 플래그십스토어(특화매장)를 친환경 콘셉트로 새롭게 꾸몄다. 매장 내부는 재활용 소재인 감귤지를 나뭇잎처럼 활용해 친환경 느낌의 거대한 공중정원처럼 연출했고, 매장 외부는 나뭇잎 모양의 알루미늄 판을 활용해 현대적인 느낌을 살렸다.

토니모리도 지난 7월 명동 1호점을 복합 뷰티 공간으로 재개장했다. 매장 안에 화장품 라인을 기능별로 분류해 진열하고 각 존(zone)마다 특징을 둬 유커가 매장에서 자유롭게 제품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매장을 구성했다.

화장품 업계는 면세점과 손잡고 다양한 기획 세트도 출시했다. 후는 국경절을 맞아 '후 비첩 자생에센스 헤리티지 에디션'을 특별세트로 선보였다. 이번 헤리티지 에디션은 기존 정품 용량 45ml보다 두 배 늘어난 90ml이지만 가격은 기존 16만원에서 4만원만 올려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설화수는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인기상품인 '진설 5종'을 선물용으로 출시했다. 아이오페는 나이트팩을 포함한 신제품과 기획세트를 선보였다. 라네즈는 면세점에서 처음 머드팩을 출시하고 금액대별 프로모션을 추가로 등 유커 잡기에 나섰다.

이밖에 네이처리퍼블릭, 한스킨, 에스쁘아, 스킨푸드, 마스크다이어리 등의 다양한 브랜드숍도 이 기간 할인행사와 1+1 증정행사를 연다.

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이후 한국을 찾는 유커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중국 국경절 연휴를 기점으로 시장 회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명절 과일세트 무게, 포장재 포함시켜 '뻥튀기'

온라인 11곳 1100개 세트 조사
순수 과일중량 표기 193개뿐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과일세트의 표시 중량에 1kg이 넘는 포장 무게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이달 들어 21일까지 소셜커머스·오픈마켓·온라인몰 등 11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팔리는 과일세트 1100개의 중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순수하게 과일만의 실제 중량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

618개(56.2%)는 '총중량'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박스를 포함한 것인지 실제로 받아보지 않는 한 판단하기 어려웠다. 나머지 289개(26.3%)의 경우 버젓이 '박스 무게 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과일 중량에 박스까지 더한 무게를 표기하고 있었다.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 중량 표기 사례 비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48.5%)이었다.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도 27.7%에 이르렀다. GS샵·CJ몰·현대H몰·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의 표본 조사 과일세트 중 17% 역시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 중량을 안내했다.

'총중량'으로만 애매하게 표기한 상품들 중에서도 실제 과일 무게는 표기보다 훨씬 더 적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로 한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8kg짜리 사과·배 세트(5만9900원) 한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의 실제 중량은 6.6kg에 불과했다. 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4kg짜리 사과 한 박스(1만8900원)의 실제 과일 무게도 3.5kg에 그쳤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과일 박스의 경우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 영업관행"이라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 점검과 유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MPK그룹, 화장품 기업 인수 사업다각화·해외시장 개척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회장 정우현)이 화장품 전문기업을 인수하고 사업 다각화와 함께 해외 시장 확장에 나선다.

MPK그룹은 23일 코스메틱&뷰티전문기업인 한강인터트레이드의 지분 80%를 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설립한 한강인터트레이드는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 수입 판매와 엘리자베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코팩과 마스크팩, 클렌징폼 등을 국내에서 개발, 생산(OEM)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MPK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한강인터트레이드의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시장 확장 시 해당 국가에 진출한 미스터피자와의 공동마케팅으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미 기자

초단편 '스트레스' 1등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

짧은 시간에 다양한 감정 담아
100% 온라인 관객 투표로 선정



제6회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 국제경쟁부문 1등상의 영광은 독일 출신 스벤 웨그너 감독의 '스트레스'에 돌아갔다.

가장 많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은 초단편영화 '스트레스'는 바쁘게 일하는 한 소년과 그의 여자 친구가 등장해 짧은 시간 동안 교차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아내 관객을 사로잡았다.

주요 수상작은 국제경쟁부문 서울메트로-베를린 펜스터 ▲1등상 '스트레스'(감독 스벤 웨그너·독일) ▲2등상 '소녀상'(감독 박용성·한국) ▲3등상 '변신'(감독 메흐디 알리베기·이란)이다. 국내경쟁부문에서는 '완벽한 고백'(감독 엄대용·한국)이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 누리집(www.smiff.kr)에서 볼 수 있다.

올해는 전 세계 46개국에서 988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중 26편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해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온라인과 극장 등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본선 심사는 온라인을 통해 100% 관객 투표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22일 이수 아트나인 야외 테라스에서 수상자와 영화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수상자에게는 1등 3000 유로(390만원), 2등 2000 유로(260만원), 3등 1000 유로(130만원), 서울메트로 특별상(국내경쟁부문 수상작)에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는 서울메트로와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베를린 지하철(Berliner Fenster)과 협력하는 아시아 최초의 지하철 초단편 영화제다. 지하철과 초단편 영화의 만남을 통해 지하철을 생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0년부터 개최됐다.

서울메트로 이정원 사장은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메트로가 문화공간, 행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마음 속 '화' 다스리기… 대상포진 치료 첫걸음

대상포진은 대상(帶狀)으로 나타나는 발진을 말한다. 대상이라 함은 허리띠처럼 병의 상태가 나타난다는 증상의 형태학적인 이름이 붙은 것이다. 상하좌우(옆으로 위로 아래로)로 파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기경 팔맥의 대맥 부위인 옆구리와 허리에 주로 발생한다.

육경론에 의한 발병부위를 보면 태양경은 등과 허리에 주로 나타나니 한반이나 등에 나오는 여드름이라 할 수 있다. 심하면 종기로 발병한다. 양명경은 얼굴이나 몸의 앞부분 혹 전신에 발병하는 피부병으로 요즘의 아토피라 할수 있다. 소양경은 앞서 설명했듯이 측면에 나타나는 대상포진류다. 소음경은 흉부와 허리 부분, 태음경은 등과 가슴 그리고 팔다리, 궐음경은 가슴 이상이거나 전신에 발병한다.

진이라 함은 좁쌀 크기의 피부 융기를 의미하며 발적(빨갛고) 혹은 황색(누렇게)을 주로 띄게 된다. 융기된 피부 안에는 긁어서 터트려 보면 피나 고름이나 진물 그리고 돌처럼 딱딱한 것들이 있으나 주로 진물이 흐르는 것이 많다.

양방에서 말하는 원인 병원체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다. 이는 어린이가 흔히 걸리는 수두의 원인체인 수두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다.



한달수 한의원의 한달수 원장.

소양형 체질 노심초사 금물
양명형 체질 몸 열조절 필요

소아기때 수두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 수두를 앓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가 몸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체내에 남아 있는 수두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이동해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 이 경우에는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사람이 이를 느끼지 못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병적인 증상도 없다.

한방에서는 표리전의 기전으로 소양경에서 궐음경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그 치료법은 제통장양 개속어화(제통양 개속어화)이니 화에는 육기에 의하면 소음군화 소양상화 두가지로 구분한다.

그 중 소양상화(담경)라 볼 수 있으니 담(쓸개)의 화기를 없애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발병 초기에 오한 발열 체통(아픈 부위)이 있으면 풍한습열이 화로 변한 것이니 발한하면서 사화하는 한약을 사용하면 되니 기분복화라 하고 음양기혈중 음인 폐와 신장에 기운에 숨어있는 것이다.

오한이 없이 아프기만 한 것은 화기만 남은 것이니 사화 청열하는 한약을 사용하면 되고 혈분복화라 하고 음양기혈중 양인 간장과 심장의 피에 숨어있는 화기라 할수 있다.

소양경은 담(쓸개) 삼초(명문)의 화기가 숨어 있는 것이니 이를 복화라 하고 소양상화라 한다.

한달수 한의원의 한달수 원장은 대상포진의 치료법은 "마음이 자상하여 섬세한 면이 있는 소양형 체질은 지나치게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환절기 몸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양명형 체질은 열독을 다스리는 탕약으로 몸속의 열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또 "기운에 있는 화기나 열기를 빼내주고 혈병간 심포 즉 피속에 있는 화기나 열기를 없애 주면 대상포진은 낫는다"며 "복화(伏火)는 잠복(潛伏)된 숨어 있는 화기(火氣)를 말하니 한방에서는 상화(相火)라 하며 칠정(七情)으로 표현하면 노기(怒氣)니 화내거나 성내는 일,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 되는 병"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상포진은 소양경의 화기나 열기를 다스려 주면 되는 질환이다. /최치선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음료 부문 단독 1위 기업에 선정되어 인증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제공

롯데칠성음료

NCSI 음료부문 3년째 단독 1위

마케팅 강화로 적극 소통
탄산수 시장 트렌드 주도
고객 만족도 높인점 인정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기업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음료 부문 단독 1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국가고객만족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모델로 국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73개 산업, 3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지수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칠성음료는 세부 항목인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 인지가치, 고객충성도와 고객유지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3년 연속으로 NCSI 음료부문 단독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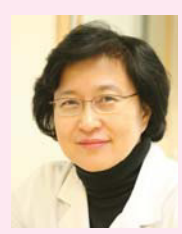
롯데칠성음료는 대표제품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아이시스8.0 등의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고객과 적극 소통하고 탄산수 트레비를 앞세워 국내 탄산수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등 고객의 욕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만족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업으로 선정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음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고객의 삶에 활력을 더해주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가슴통증·급사… 심장질환 모든 것

이대목동병원

'심장의 날' 기념 건강강좌
내달 6일 병원2층 대회의실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센터장 : 신길자 순환기내과 교수·사진)는 세계 '심장의 날'을 기념해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한심장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가슴 두근거림에서 심장급사까지(박준범 심장혈관센터 교수) ▲가슴이 아파요(신길자 심장혈관센터 교수) ▲심장혈관 질환을 줄이는 식사(강병진 영양사)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요(편욱범 심장혈관센터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강강좌는 질환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문의 :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02-2650-6177, 5308) /최치선 기자

고전부터 신작까지… 부산 수놓을 영화들

◆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추천작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내달 1일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본연에 충실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75개국에서 온 총 304편의 초청작 중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꼽은 추천작을 소개한다. 올해 꼭 놓쳐서는 안 될 작품들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사진/부산국제영화제 제공

영화로 만나는 세계



컴패니언 파벨 지루 감독

1980년대 말 쿠바를 배경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한 남자와 희망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나누는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우정의 이야기다. 어떤 상황에서도 꺾을 수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주제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모두를 공감케 한다. (박진형 프로그래머)

클레버 페데리코 보르지아·기예르모 마데이로 감독

미묘하게 매력적인 감성과 화법, 그리고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가 돋보이는 코미디다. 만화적인 상상력과 레트로 감성이 돋보이는 신선한 코미디 스타일에 주목하자. (박진형 프로그래머)

중년의 사랑 다룬 한국영화

두 번째 스물 박흥식 감독

20대에 사랑하던 남녀가 있다. 세월이 흘러 남자는 결혼을 했고 여자는 사별을 했다. 각자의 가정과 삶이 있는 상황에서 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다시 사랑을 나눈다. 누구나 한번쯤 꿈 꿔 볼만한 40대의 로맨스. (남동철 프로그래머)



나홀로 휴가 조재현 감독

아내와 아이에게 충실한 중년 남자에게 어느 날 어린 애인이 생긴다. 남자는 정신없이 그녀에게 빠져들지만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는다. 배우 조재현의 감독 데뷔작으로 중년 남성들이 공감할 이야기가 펼쳐진다. (남동철 프로그래머)

다시 만나는 아시아의 고전



동경 이야기 오즈 야스지로 감독

2차 세계대전 후 변화하는 가족관계와 소외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일본 사회를 그린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1953년 작이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는,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미학의 정점을 보여준다. (김지석·김영우 프로그래머)

아푸 2부-아파라지토 사티야지트 레이 감독

'길의 노래' '아파라지토' '아푸의 세계' 등 세 편으로 이루어진 사트야지트 레이의 대표작. 세계 영화사를 주름잡던 일본영화의 기린아들에 앞서 인도영화와 아시아영화를 세계영화계에 각인시킨 감독은 사티야지트 레이였다. (김지석·김영우 프로그래머)

배우로 더욱 빛나는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복자매의 존재를 알게 되는 세 명의 자매들에 관한 이야기다. 아야세 하루카, 나가사와 마사미의 이름으로 이미 설레는 남성들이 많을 것이다. 여기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라면 더 이상 의문을 품지말자. (김지석·김영우 프로그래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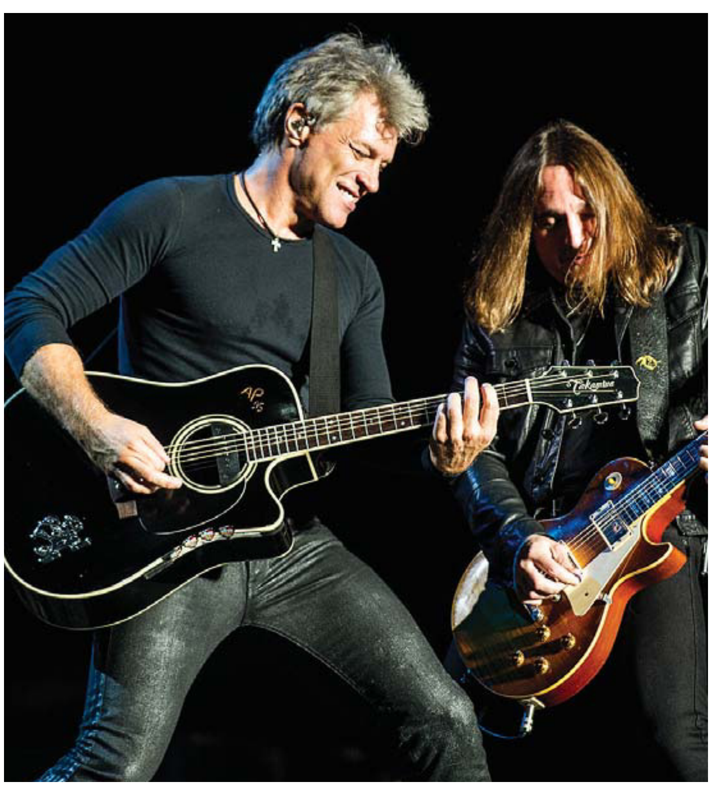


세 도시 이야기 메이블 청 감독

중일 전쟁 혼란기에 헤어진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대하드라마다. 혼란의 역사를 온몸으로 돌파하는 강인한 여인을 연기하는 탕웨이, 그녀와 운명적인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남성을 연기하는 유청운의 연기가 빛난다. (김지석·김영우 프로그래머)

참고사진. ① 컴패니언 ② 두 번째 스물 ③ 동경 이야기 ④ 바닷마을 다이어리

세월 흘러도 변함없는 열정… 1만4000명 관객과 '떼창'



20년 만에 내한한 본 조비 히트곡으로 열정적인 무대 '올웨이즈'로 공연 대미 장식

한 시대를 풍미한 록 스타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음악에 담은 열정만큼은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변함없었다.

록 밴드 본 조비(Bon Jovi)가 2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22일 저녁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내한공연에는 1만4000여명의 관객이 운집해 본 조비의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다.

본 조비는 2013년 발표한 12번째 음반 '왓 어바웃 나우(What About Now)'의 수록곡 '댓츠 왓 더 워터 메이드 미(That's What The Water Made Me)'로 공연의 막을 올렸다. 이어 '유 기브 러브 어 배드 네임(You Give Love A Bad Name)' '본 투 비 마이 베이비(Born To Be My Baby)' '런어웨이(Runaway)'등 80년대 전성기 시절 히트곡을 연이어 부르며 관객을 열광시켰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났지만 세월의 그늘을 지울 수는 없었다. 특히 존 본 조비는 과거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았던 금발이 아닌 하얗게 센 머리로 무대에 올라 짠한 마음을 느끼게 했다. 몇몇 곡에서는 과거와 같지 않은 성량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객은 본 조비를 뜨겁게 반겼다. 2000년대 대표 히트곡인 '잇츠 마이 라이프(It's My Life)'에서는 노래 제목이 쓰인 종이를 들고 후렴구를 따라 불렀다. 이를 지켜보던 존 본 조비는 감격한 표정으로 감사를 전했다. 관객의 뜨거운 환호에 본 조비는 더욱 열정적인 무대로 화답했다. '킵 더 페이스(Keep The Faith)'와 '배드 메디슨(Bad Medicine)'에서는 관객과 밴드가 '떼창'으로 하나가 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본 조비는 이날 공연에서 예정에 없던 곡까지 부르며 한국 관객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공연의 대미는 히트곡 '올웨이즈(Always)'가 장식했다. 최근 공연에서는 잘 부르지 않던 노래를 한국에서만 특별히 선보였다. 20년의 기다림과 아쉬움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순간이었다.

/장병호 기자·사진/라이브네이션코리아 제공



FashionN
9월 24일 목요일 밤 9시 첫방송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민족음악가 윤용하 50주기 음악회

30일 명동대성당
추모음악회 '보리밭 사잇길로'
일제시대 우리노래 전파 앞장
문화독립운동가로 재조명



'보리 밭 사이 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가곡 '보리밭'의 작곡가 윤용하 선생을 기리는 50주기 추모음악회가 열린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주임 고찬근 신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음악가 윤용하 선생을 기리는 '윤용하 음악회:보리밭 사잇길로'를 30일 오후 8시 명동대성당에서 개최한다.

작곡가 윤용하는 1922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나 1965년 43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타계할 때까지 200여 곡이 넘는 창작곡을 만든 민족음악가다. 우리나라 동요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뭇잎 배'와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친숙한 가곡 '보리밭'을 작곡했다.

일제 강점기에 있던 만주 봉천에서는 조선합창단을, 신경에서는 신경반도합창연맹을 만들어 일제에 항거했던 '문화독립운동가'였으며 변절하지 않고 왜색을 거부한 드문 음악가이기도 하다.

광복 후에는 '광복의 노래'와 '민족의 노래'를 만들었으며 6·25 당시에는 피난지에서도 대한어린이합창단을 조직하는 등 음악을 통해 모두가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었다.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났으나 비루한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자발적 가난을 택한 삶의 태도로 인해 단칸 셋방살이를 전전했고, 평생 낡은 오르간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윤용하 음악회: 보리밭 사잇길로'는 음악과 함께 윤용하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잊었던, 혹은 알지 못했던 윤용하를 다시 기억해내고 찾는 음악회다.

귀에 익은 보리밭 아카펠라를 시작으로 굴렁쇠아이들의 나뭇잎 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합창단인 가톨릭 합창단이 부르는 윤용하의 가곡들이 가을 저녁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명동성당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윤용하 선생의 장례미사가 열렸던 곳이자 그의 40주기 추모음악회가 열렸던 곳이다.

명동성당 주임 고찬근 신부는 "윤용하 음악회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청빈한 예술가의 삶을 살다 간 윤용하를 추모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 감각'을 일깨워주는 '모두의 음악회'"라고 말했다.

음악회가 열리는 명동대성당과 대성당까지 연결되는 길목에는 윤용하 선생의 대표곡 '보리밭'을 표현하는 박정현 작가의 설치작품인 보리화분과 800여 송이의 보리가 전시될 예정이다. 공연문의 (02) 774-1784.

/이예진 기자 green@metroseoul.co.kr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내달 3일 콘서트홀

'2015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네 번째 무대가 10월 3일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지휘자 정치용의 자상한 해설과 위트 넘치는 구성을 통해 클래식 음악과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10월 공연은 베버의 '오베론' 서곡으로 시작한다. 힘차게 울려 퍼지는 호른과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관악기와 현악기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서 연주되는 곡은 멘델스존이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 밤의 꿈'을 모티브로 삼아 작곡한 작품이다.

세 번째로 연주할 작품은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이다. 대담한 하모니와 새로운 리듬의 감각이 돋보이는 곡이다.

청소년 1만원, 어른 1만50000원. 문의 (02) 580-1300.

TV 하이라이트

콜라보레이션 배틀 합격자는?

◆ 엠넷 '슈퍼스타K7'

오후 11시



슈퍼위크 컬래버레이션 배틀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다. 아이블랙(마틴스미스·자밀킴)팀은 빅뱅의 '루저'를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홍이오(이요한·케빈오·클라라홍)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을 편곡해 이에 맞선다. 첫 번째 대결에서 한 팀을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에 난색을 표했던 심사위원들은 이번에도 깊은 고민에 빠진다. 성시경은 탈락자를 선정한 뒤 죄책감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성동일은 권상우와의 남달랐던 호흡을 자랑한다. 영화 촬영이 50회차였지만 사적으로 만난 자리가 67회차였다며 끈끈한 우정 뒤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 SBS '자기야-백년손님'

오후 11시15분

결혼한 지 44일 된 새신랑 박현빈이 생생한 신혼 생활과 결혼 전 아찔했던 비밀 연애 스토리를 고백한다.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엉뚱한 사연도 공개한다.



◆ JTBC '님과 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40분

장서희, 윤건 부부는 한강에서 웨딩촬영에 나선다. 절친인 정인, 조정치 부부가 도우미로 나선다. 둘은 수많은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에서 프로 모델 못지 않은 포즈를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일(목)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OCN series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힐링의 품격 (재) 10:20 연쇄쇼핑가족 (재) 11:40 비정상회담 (재)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4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00 명단공개 06:4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20 집밥 백선생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비밀독서단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5:20 쏜다 07:20 과거를 묻지마세요 08:30 베이츠모텔 시즌2 10:20 신의 퀴즈 시즌2 11:20 무비스토커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2015 전국 대학 배구 15:55 튼튼생활체조 16:00 오늘의 경제 16:10 다큐 공감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인간극장 스페셜 13:50 야생일기 (재)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위기탈출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위대한 조강지처 (재) 13:00 2015 코리아오픈 테니스 대회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자기야–백년손님 (재) 14:00 문화가중계 (재) 15:00 특별생방송 내일을 JOB아라!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4: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6: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2:30 프리즌 브레이크 14:10 컨티넘 시즌2 15:00 CSI NY 시즌8 16:40 베이츠모텔 시즌2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추석기획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KBS 다큐 1 23:00 KBS 뉴스라인 23:40 전기통신사업 130주년 특집 통신, 인간과 통하다 24: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600회 기획 비타민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해피 투게더 24:4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추석특집 어게인 인기가요 베스트 50 24:55 MBC 뉴스 24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용팔이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유자식상팔자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2:50 썰전 24:15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MBN협동프로젝트 신 부자수업 21: 45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재)	08:00 코미디 빅리그 (재) 19:20 수요미식회 (재) 20:40 젠틀맨리그 21:40 어쩌다 어른 (재) 23:00 슈퍼스타K7 24:40 수요미식회 (재)	18:20 인류멸망보고서 20:20 컨티넘 시즌2 21:10 모티브 22:00 빅뱅이론 시즌8 22:55 레이 도노반 시즌2 24:00 하우스 오브 라이즈 시즌2

유희관, 꿈의 20승 채우고 '가을 야구' 간다

두산 좌완 최다승 신기록
포스트시즌 등판 유력

두산의 좌완 투수 유희관(29)은 국내 야구에서 별종으로 통한다. 최고 시속이 130㎞에 그치는 데다 특출난 변화구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올 시즌 강력한 다승왕 후보다. 모든 투수들이 바라는 한 시즌 20승 기록에 단 2승 만을 남겨놨다.

유희관은 2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6이닝 7피안타(2피홈런) 4실점으로 팀의 6-5 승리를 이끌며 시즌 18승을 거뒀다.

이로써 NC의 에릭 해커와 함께 다승 부문 공동 선수로 올랐다. 또 2004년 게리 레스가 기록한 17승을 넘어 소속팀 두산 좌완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으로 2승을 더 거두면 리그에서 국내 투수로서는 1999년 정민태(당시 현대 소속) 이후 오랜만에 20승 투수가 탄생하게 된다.

팀내 통합 기록으로는 1위 박철순(1982년 24승)까지는 어려워도 2위인 최일언(1986년 19승)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유희관은 좌완 정통파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120~130㎞대의 공을 던진다. 이를 놓고 본다면 프로에서 통할 수준인가 싶다. 그러나 상대하는 타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타자들은 입을 모아 그의 공이 스피드건에 찍히는 속도보다 빠르게 보인다고 말한다. 비밀은 공의 회전 수에 있다. 140㎞대의 공보다 회전수가 약 2배 많다.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볼 끝이 살아 있는 묵직한 공을 던진다. 정교한 제구도 가능하다. 그의 공은 대부분 타자들이 가장 치기 어려운 무릎 근처 스트라이크존으로 떨어진다.

두산은 현재 리그 4위다. 가을야구가 확실시된다. 팀 에이스인 유희관은 1선발이다. 이대로라면 유희관은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 등판하게 된다. 유희관으로서는 팀내 기록과 동시에 가을야구까지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변수는 기복이다. 유희관은 최근 10경기에서 6승2패를 기록했다. 승수는 많지만 기복이 있었다. 지난 16일 롯데전에서 5⅓이닝 동안 7실점으로 무너졌다. 22일 롯데전도 승리는 챙겼지만 내용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6이닝 동안 홈런 2방을 포함해 7안타를 허용하며 3실점했다. 아슬하게 승리투수 요건을 채웠다. 팀 동료들의 화력 지원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9월 들어 페이스도 떨어지고 있다. 9월에 치른 4경기에서 2승을 거뒀고 월간 평균자책점은 5.11이다. 유희관으로서는 별종 투구를 넘어선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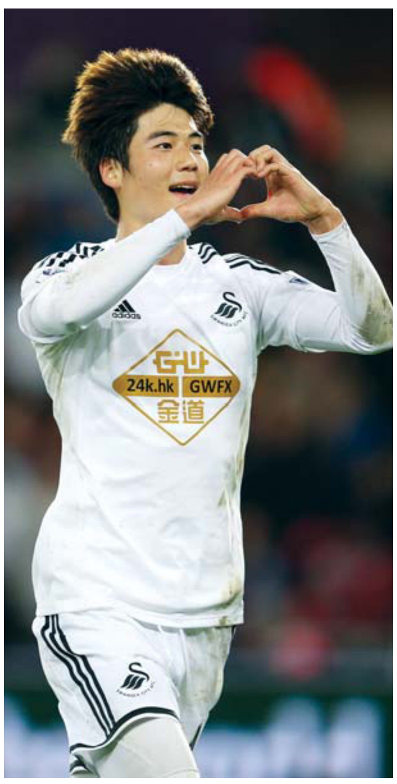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22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대 두산 베어즈의 경기. 두산 선발 유희관이 1회말 롯데 타선을 상대로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풀타임에도 막지 못한 팀 패배

스완지시티, 캐피털원컵 탈락



기성용(사진)이 풀타임을 소화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가 이번 시즌 2부리그로 강등된 헐시티에 패했다.

스완지시티는 23일(한국시간) 영국 헐의 킹스턴 커뮤니케이션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헐시티와의 2015-2016시즌 캐피털원컵(리그컵) 3라운드 경기에서 0-1로 져 탈락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41분 헐시티의 데이비드 메일러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후 만회하지 못했다.

직전 2015-2016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애버턴전에서 후반전 교체 출전해 32분을 소화했던 기성용은 이날 풀타임을 뛰며 팀동료 웨인 라우틀리지에게 패스를 연결해 슈팅찬스를 만드는 등 활약했다. 그럼에도 팀의 패배는 막지 못했다.

/하희철 기자

토트넘, 손흥민 인기에 한국어 서비스 강화

소셜미디어팀, SNS 콘텐츠 생산 박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손흥민의 맹활약에 소속팀 토트넘이 한국어 서비스를 강화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 소셜 미디어팀은 구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웹사이트에 한국어 패치를 설치하고 콘텐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그의 그라운드 안팎의 콘텐츠를 담은 이미지와 비디오 영상물 등을 한글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또 구단 웹사이트에는 인터뷰와 경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사는 물론 토트넘 관련 구단 내용도 제공된다.

토트넘은 지난 21일(한국시간) 전날 치러진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자 구단 페이스북에 이청용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한국어로 글을 남기기도 했다.


Tottenham Hotspur
9월 20일 오후 11:49
경기가 끝난 후 다시 만난 이청용 선수와 Heung Min Son 손흥민 선수! 다음엔 꼭 그라운드 위에서 같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루드래곤 #손세이셔널 #COYS

토트넘이 21일(한국시간)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왼쪽)과 손흥민이 경기를 치르고 난 뒤 어깨동무를 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구단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토트넘 페이스북

한편 토트넘은 1억8000만명의 축구팬들이 있는 아시아에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AIA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인도네시아어, 힌두어 등 아시아 5개 언어로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하희철 기자



FC바르셀로나 유스팀 이승우. /연합뉴스

바르셀로나 유소년 선수 뿔났다… 징계받은 선수, FIFA 상대 제소

FIFA, 경기 출전·훈련 금지 징계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은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소속 유소년 선수가 FIFA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신문 미러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출신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소속 벤 레더먼의 아버지 대니 레더먼이 "이 문제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FIFA는 이달 초 18세 미만 선수들의 외국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FC바르셀로나 소속 유소년팀 선수 10명에 대해 경기 출전 및 훈련 금지는 물론 클럽 축구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에 머물지도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승우, 장결희 등 한국 선수도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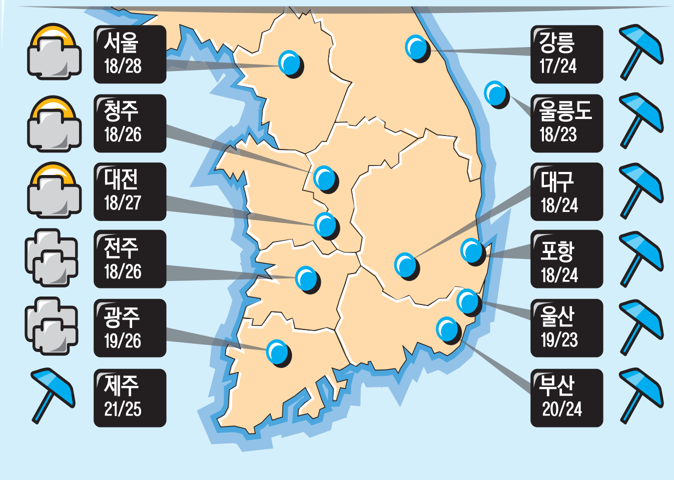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 변호사인 레더먼은 "FIFA가 내 아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소송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가족은 벤이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들어가기 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주했다"며 "이번 FIFA 징계는 매우 터무니없다. 소송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CAS의 판결을 구해보겠다"며 "아마 다른 선수들도 우리와 비슷한 현실에 직면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희철 기자

날씨

9/24 목 일출시각 06:21 일몰시각 18: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5		2	
	3	8			4			
5		6	9	3		8	7	
1	7	9						
						9	1	8
	8	3		4	9	7		1
			7			4	8	
	1		2				3	

							3	8
	2		5					
6	4		2		3			
2		4	7				5	
7			1		9			2
	9				5	4		7
			3		8		1	6
					2		4	
1	7							

스도쿠 정답

9	4	1	8	7	5	6	2	3
7	3	8	6	2	4	1	9	5
5	2	6	9	3	1	8	7	4
1	7	9	3	5	8	2	4	6
8	6	4	1	9	2	3	5	7
3	5	2	4	6	7	9	1	8
2	8	3	5	4	9	7	6	1
6	9	5	7	1	3	4	8	2
4	1	7	2	8	6	5	3	9

5	1	9	4	6	7	2	3	8
8	2	3	5	9	1	6	7	4
6	4	7	2	8	3	5	9	1
2	8	4	7	3	6	1	5	9
7	6	5	1	4	9	3	8	2
3	9	1	8	2	5	4	6	7
4	5	2	3	7	8	9	1	6
9	3	8	6	1	2	7	4	5
1	7	6	9	5	4	8	2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You've got to look the part

A: Nice profile pic.

B: Thanks. Do I look like a professional or what? Lol

A: I'm shocked to see you out of a t-shirt n sneakers.

B: Heh. But what do you think of the suit?

A: Top notch.

B: And the tie? Do they go well together?

A: The whole ensemble looks great. Since when did you care so much about this stuff?

B: I decided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getting a job. And if you want a good job **you've got to look the part.**

A: Who are you?

B: Huh?

A: Nothing. So proud of you. You'll be making the big money in no time.

거기에 어울리게 보여야지

A: 프로필 사진 멋진데.

B: 고마워. 나 진짜 프로처럼 보이지 않냐? ㅋㅋㅋ

A: 티셔츠와 운동화에서 벗어난 니 모습을 보고 쇼크 받았어.

B: 헤. 근데 그 양복 어때?

A: 최고!

B: 글고 타이는? 잘 어울릴까?

A: 전체 앙상블이 멋지다. 언제부터 이런 거에 신경 썼니?

B: 취업에 진지해질 때가 됐다고 결심했어. 좋은 직장을 원하면 **거기에 어울리게 보여야지.**

A: 누구냐 너?

B: 엉?

A: 암것도 아냐. 넘 자랑스럽다. 너 곧 떼돈 벌겠는데.

* Lol : 웃음을 표현하는 인터넷 속어로 laugh out loud의 약어
* n: and의 약자

글로벌어학원 Global Language Institute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막막해 이직 고민
내년 7월까지는 인내… 2018년 재능 결실

미공개

Q 나이가 많습니다. 현재 작은 회사 경리업무를 하고 있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 직장이 좀 먼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출퇴근시간만 왕복 6시간이 넘고 같이 가자고는 하는데 정말 필요해서 가자고 한다면야 이사를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막막합니다.

이직 운이 언제 있는지 나이가 많아 이번에 옮기면 정년까지 있을 곳이 필요한데 저와 잘 맞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직 운이 언제 있고 저와 잘 맞는 지 어떤 직종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공간이 남으시면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A 지면상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상담 신청하십시오.

생일에 지살(地殺)은 중년이후 객지 생활로 분주함을 암시하며 지방에 가서 생활해야 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지방으로 같이 가자'라는 말이 신뢰감 없이 느끼더라도 운에서 이직 운이 왕성하지 못하게 성장해가는 초기가 되는 형상입니다. 직장을 섣불리 옮기거나 사퇴를 하면 현재보다 더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자리를 바꾸지 않도록 하세요.

직장변경에 어쩌면 두려움까지도 따르겠으나 지금부터 준비하여 2018년을 기대하십시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재능이 결실을 보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도 함께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현 직장 안에서만 소통 없이 지냈을 터인데 이직의 두려움을 떨치고 자격증에 도전 하십시오.

일단 이사보다는 2016년 7월 까지는 고생스러워도 지내보십시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행복과 불행을 달리 느끼는 것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물이 솟아오르는 바위' 즉 샘터요 약수와 같은 형상으로 성실한 원류가 풍부하니 오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여력을 지니고 있듯이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다만 편인(偏印: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과 비견(比肩:나와 동급의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의 조합으로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사물의 양면을 간과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답답하여 고독합니다.

2018년이 지나면 생일지(生日支:생일)에 장생(長生:갓 태어난 아기가 성장을 하는 시각)을 놓고 새 출발이 예견되는 좋은 일이 있으니 뭐든 자격증 공부를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4일 (음 8월 1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60년생**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72년생** 방탕한 생활 속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84년생** 죄를 짓고는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 **49년생** 작은 실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61년생** 심하면 부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73년생** 쉽게 인연이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85년생** 본인의 단점을 빨리 파악하여 고치도록 하세요.

호랑이 **50년생** 일마다 곤고함이 따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62년생** 쉴 틈 없이 바쁘지만 실 속은 없습니다. **74년생** 많은 사람들이 귀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86년생** 여행을 떠나면 길합니다.

토끼 **51년생** 고난 속에 희망은 가까워집니다. **63년생** 역경을 잘 이겨내세요. **75년생** 불안한 미래에 당당히 부딪혀 보세요. **87년생** 모든 일을 쉽게 이루니 이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용 **52년생** 도모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64년생** 허황된 일은 삼가 하세요. **76년생** 일을 급히 도모하려고 마음을 태우지 마세요. **88년생** 늦게 성취될 것입니다.

뱀 **53년생**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65년생** 오래된 지병만 아니라 면 조금씩 차도가 있습니다. **77년생** 힘든 일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89년생** 너무 지쳐 있습니다.

말 **54년생** 조금 부족하여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66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세요. **78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으세요. **90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양 **55년생** 지금의 매매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습니다. **67년생** 서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찾아보면 찾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79년생** 과한 운동은 독이 됩니다. **91년생** 때를 기다려 보세요.

원숭이 **56년생** 미룰 수 있는 여행이라면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달이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80년생** 성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92년생**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닭 **57년생** 위아랫 사람이 화목 하지 못합니다. 69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81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93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불어 나겠습니다.

개 **58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70년생** 고민하는 일이 해결됩니다. **82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보게 됩니다. **94년생** 남의 언쟁에 끼어드는 것을 삼가하세요.

돼지 **59년생** 바른 자세로 일을 하세요. **71년생** 집안에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83년생**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95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국내 수입차 점유율, 20%가 마지노선



김필수의
차 이야기

올해 국내 수입차 점유율은 16%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만대는 훌쩍 넘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입차의 점유율이 20% 내외에서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수입차의 판매형태가 현재와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면 말이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한 국산차의 경우 소비자의 소통 등 다양한 접근 전략을 통해 옛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은 물론 애프터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입차와 비교해 강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비자 중 일부가 수입차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으나 점차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피로현상은 물론 제살을 깎아 먹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치열한 가격 경쟁력으로 완성차 판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같은 브랜드 딜러끼리의 다툼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최고급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도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다.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수입차 구입형태의 문제점이다. 각종 파이낸스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금 유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턱 낮추기 전략을 구사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숨어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원금 유예가 끝나가면서 젊은 층의 이른바 '카푸어'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젊은 층들이 집을 구하지 않고 우선 수입차부터 구입하는 형태는 한계가 있다. 당장은 누가 대신해준다는 형태지만 곧 책임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두 번째로 법인차 구입의 문제점이다. 사업용 차량 구입에 대한 법적인 테두리가 어느 정도 마련됐으나, 정부에서 이번에 이를 더욱 강화되면서 사업용 차량 구입의 한계가 커졌다. 현재 고가 수입차 브랜드의 상당수는 사업용 차량으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보편화된 상황이다. 2억원 이상의 최고가 수입차는 90% 정도가 모두 사업용 차량이다.

사회적 후유증이 큰 만큼 제도적 규제가 클 것이다. 머지않아 다른 선진국과 같이 구입비용에 대한 상한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출퇴근 용도의 수입차 등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대체품 제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는 지지부진하지만, 분명히 안착되기 시작하면서 수익 모델에 대한 한계점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부품비와 공임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보험제도도 수입차에 부담이 되는 제도적 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수면 위로 부각된 수입차에 대한 각종 제도적 개선은 수입차의 판매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가격과 부품비, 공임 등 국산차 대비 단점은 부각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면서 죽어가는 수입차 딜러도 많아질 것이다.

현재 호황을 맞은 시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국내의 선진 제도 안착과 저항선에 대비한 전략을 면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만큼 국산차 메이커의 전략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허상과 현실도 확실히 구분하는 소비자의 냉정함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거짓’과 ‘기만’은 기업의 운명 바꿀수도



기자 수첩
조한진
<산업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벌벌 떨고 있다. 폭스바겐의 '기만'으로 시작된 후폭풍 때문이다.

폭스바겐그룹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승용차가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이를 꺼지도록 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수십조원의 배상금을 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거짓말 하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향후 차량판매 급감도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기업 자체의 존폐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은 기업의 우선 과제다. 중요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거짓과 눈속임은 오래가지 못한다.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가 우리 기업들에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자국 소비자를 소홀하게 대한 것이 사실이다. 온라인상에 '호갱님(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대기업은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 등을 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자세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다. 분쟁이 터지면 일단 '호갱님이 잘못하셨습니다'로 몰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비자 개인이 거대 조직을 상대로 싸워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필요할 때면 '애국심'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봉합되면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우리 '호갱님들'도 점차 인내심을 잃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정직하게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장 제경희

◇우정사업본부△ 4급 승진▷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최용록 ▷〃 보험사업단 보험사업팀 최원봉 ▷〃 감사담당관실 박한선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석원근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장 박계화 ▷경인지방우정청 예금영업과장 권혁운 ▷부산지방우정청 예금영업팀장 우원식 ▷부산지방우정청 보험영업과장 심정보 ▷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장 강명구 ▷경북지방우정청 감사관 오일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장 곽근찬 ▷강원지방우정청 감사관 최명철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 황국선 ▷〃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최태경

◇인사혁신처 △부이사관 승진▷인재개발국 채용관리과장 조성제 ▷윤리복무국 윤리과장 신병대 △서기관 승진▷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 류선희 ▷인재개발국 인재개발과 배철주 ▷인재개발국 채용관리과 김호규 ▷인사혁신국 고위공무원과 이창섭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 김경민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윤희성 ▷인사조직과 조현은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승진 ▷광주지원장 권주화 △전보 ▷경쟁력강화 T/F 단장 정성철 <팀장>△ 승진 ▷경쟁력강화 T/F 선임조사역 김정태 ▷재무회계부 자금팀장 제갈승문 △ 전보 ▷청산결제부 청산결제기획팀장 오재환 ▷청산결제부 주식결제팀장 이광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책기획본부장 손병호 ▷사업조정본부장 황지호 ▷재정투자분석본부장 임현 ▷경영지원단장 한성구 ▷전략기획실장 이흥권 ▷창조경제전략센터장 손석호 ▷국제협력센터장 유승준 ▷규제개혁센터장 신문봉 ▷성장동력사업실장 김석필 ▷홍보기획팀장 권명화

社說

노동부장관이 지금 해야할 일

요즘 정부가 노동5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에 참여한 주요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격려했다. '주무부처'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도 23일 관련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노동부 장관도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법 개정에 일익을 맡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지만 노동부장관에게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책임도 있다. 만약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대로 노동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노동자 해고가 지금보다 한결 쉬워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방침이 통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새로운 법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해고부터 먼저 하려는 기업도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관계법이 반드시 정부여당의 뜻대로 개정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 원안대로 될 경우 초래될지도 모르는 해고남발 사태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하고, 그 책임은 노동부에게 있다.

나아가서 해고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 방안도 노동부가 앞장서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높은 교육비와 의료비이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해고된다 해도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되면 비싼 교육비와 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관련부처에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기어코 관철하겠다면 이런 보완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데 노동부와 이기권 장관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다른 경제부처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압류된 물건 중 일부 제외 가능할까

생활 법률

몇 개월 전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을 빌린 A씨는 변제기한을 넘기자 이들로부터 집안 일부 품목을 압류 당했다. 값이 나가는 물건부터 가재도구까지 모두 압류가 되자 A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 물품 중엔 독주회를 앞둔 고등학생 딸의 피아노가 포함돼 있었던 것. 조만간 금전이 마련돼 부채를 갚을 수 있는 A씨. 피아노만 압류 품목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까.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형편'과 '그밖의 사정'이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압류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을 의미한다.

A씨의 경우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A씨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는 소명하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3호의 '학습용구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피아노는 압류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야 한다. 아울러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켜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해야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 동법 제3항이나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담보 조건의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은 보통 현금으로 하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돼있으나 보통 해당 물품의 감정가액 정도다.

/연미란 기자 actor@


순하디 순하다
처음처럼 Fruits 유자
순하리 처음처럼
처음처럼 부드럽게 유자처럼 상큼하게 유자
우리들의 가벼운 I 순하리 처음처럼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